메트로 2013년 11월 13일 수요일 www.metroseoul.co.kr

●지난해 수출 나머지 한류의 6배 ●내년 롤드컵 결승전 한국 유치 ●문화부도 "게임중독법 반대"

이래도 마약 취급? 게임의 항변

게임중독법'(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법·신의진 의원 발의) 논란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반대 진영의 목소리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게임을 당당한 산업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료가 나오는가 하면 난색 이야의 상관을 지켜보던 주무부처도 게임의 중독물질 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게임월드컵 개최지도 한국으로 결정돼 찬성 측을 머쓱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2년 국내 게임업계들이 벌어들인 지적재산권 사용료 수입이 총 6억8000만 달러(약 7700억원)로 나머지 한류 관련 업체들이 벌어들인 1억2100만 달러의 5.7배나 된다고 12일 밝혔다. '마약' 취급을 당한 국내 게임 산업의 지적재산권 수입이 방송·영화·가요 등 다른 한류 산업을 모두 더한 것의 6배에 육박한다는 이야기다.

특히 국내 게임업계가 벌어들인 수입은 2007년~2009년까지만 해도 연간 1억70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7억 달러 부근까지 육박했다. 하지만 나머지 한류 산업의 수입은 같은 기간 2000만 달러에서 1억2100만 달러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김성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사무국장은 "국내 규제가 게임에 부정적인 딱지를 붙여놓으면 게임을 갖고 해외로 나간다 해도 산업이 살아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무부처도 반대 진영에 손을 들어줬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률안에서 중독 대상으로 규정된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마약, 사행산업(도박), 알코올 등과 다르다"며 "게임중독법은 평등 원칙과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게임업계도 반격에 나섰다.

게임중독법의 주요 타깃 중의 하나인 라이엇게임즈가 e스포츠리그인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4회 내년 결승전을 한국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올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롤드컵 결승전은 전 세계에서 850만 명이 시청할 정도로 인기를 끌어 코카콜라와 같은 거대 글로벌 기업이 주목하고 있다. 이미 한국코카콜라는 내년 롤드컵 대회를 후원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아프리카를 비롯해 중국·인도·인도네시아와 같은 인구 강대국에서 스마트 기기와 무선 인터넷이 보편화될 경우 롤드컵은 월드컵 못지 않은 세계인의 축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중독법 등의 영향으로 국내 업체가 참가를 거부하고 나선 국내 유일 게임쇼 '지스타'와는 달리 미국에서 지난 10월 개막한 블리자드의 '블리즈컨'은 입장료가 175달러(약 18만7600원)인데도 2만5000장의 표가 매진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며 "내년 열릴 롤드컵이 게임중독법 때문에 파리를 날리는 일이 없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박성훈기자 lemon@metroseoul.co.kr

워킹도 '스마트 시대' 1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2013 대한민국 R&D 대전'이 열렸다. 1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노약자를 위한 차세대 로봇 기술을 뽐내는 자리다. 왼쪽은 LG전자가 선보인 '스마트 워커'로 걷기 보조, 앉기·서기, 계단 등 3가지 기능을 보조한다. 오른쪽은 근거리 교통수단인 '바이라이더' /연합뉴스

교차로 꼬리물기 4만~6만원…끼어들기 3만~4만원

카메라 찍히면 무조건 과태료

경찰이 서울 시내에서 교차로 꼬리물기 차량을 단속하는 모습 /손진영기자

앞으로 교차로에서 끼어들거나 꼬리물기 등 얌체 운전을 하다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교통 정체의 주범으로 꼽히는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지난 4월 개정한 이후 과태료 금액을 차종별로 세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에는 끼어들기와 꼬리물기가 단속 카메라에 찍혀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한 경우 무인카메라에 찍히면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차량 소유주에게 3만~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꼬리물기를 한 때에는 승용자는 5만원, 승합자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의 진출로가 정체돼 있을 때 끼어들기를 하다 무인카메라 등 단속장비에 찍히면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차량 소유주에게 승용자·승합자 4만원, 이륜차 3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김민준기자 mjkim@

방통위의 마지막 숙제

기자 수첩

이 재 영
<경제산업부 기자>

종합편성채널이 다음달 1일로 개국 2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벌써 문을 닫을지 모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11년 12월 1일 야심차게 출범한 종편은 2년 만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문제아로 전락한 것이다.

지난달 15일과 이달 1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부실 종편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막말 부실 방송, 컴부 종편 채널의 승인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출자 의혹 등 각종 문제들이 거론되며 여야 의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여야 의원들은 내년 3월 예정된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들을 철저히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TV조선 보도본부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은 정치권이 종편을 두고 힘겨루기하는 것처럼 비춰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최근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2개사 정도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가능성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그만큼 방통위 내부에서도 종편에 대한 문제가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만큼 이번 종편 재승인 심사는 여야 외압 없이 철저히 종편만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고 그 잣대에서 올바른 평가를 내려야 한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종편 재승인 심사는 마지막 숙제다. 과연 이 마지막 숙제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현 상임위원들의 평가도 엇갈리지 않을까.

"언제 오시려나" 1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소위가 열리는 여경위 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의원들과 정부측 공무원들이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한 민주당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서랍 속 '경제 법안'

현재 43개 법안 평균 225일째 계류 중 서비스산업발전법은 479일째 '낮잠'

정치권과 경제5단체장의 회동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논의 대상인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11월 정기국회 통과 여부가 관심사다. 현재 43개에 이르는 경제 활성화 법안이 평균 7개월 반가량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재계는 최근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1개 법안을 제외한 43개 법안이 제출일로부터 11일 현재까지 평균 225일간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법안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특별법 등 15개 법안에 이른다.

또 44개 법안 가운데 오래된 법안은 현재 479일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이 법안은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활성화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 및 세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20일 제출돼 지난해 9월 12일과 20일 두 차례 논의가 이뤄진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어 ▲일·가정 지원 양립법 446일 ▲스마트워크 촉진법 412일 순이다. 지난해 10월 제출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251일 만에 상임위에 상정된 이후 398일째 낮잠을 자고 있다. 대한항공이 추진하는 7000억원 규모의 7성급 호텔 등 2조원 규모의 투자, 4만7000명의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법안이지만 지난 6월 상정돼 한 차례 논의만 이뤄졌다.

손자회사의 외자 유치와 제휴 및 지분 투자, 합작 투자를 가능토록 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대기업 특혜논란'이 일며 논의 대상에서조차 제외된 실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상반기에 경제민주화 관련 법들이 많이 통과됐지만 지금도 많은 법안이 대기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은 이느 정도 마무리하고,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 회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ksui@metroseoul.co.kr

대학 5등급 나눠 4개등급 정원감축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방안이 구체화됐다.

12일 교육부 정책연구팀이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에 따르면 2015년부터 절대평가를 통해 대학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등급으로 나누고 최상위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은 강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최우수 대학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은 강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기존 시안의 3등급에서 5등급으로 더 세분화됐다.

우수 대학은 일부를, 보통 대학은 평균 수준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미흡과 매우 미흡 대학은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

정원 감축 규모는 예상 미충원 인원 등을 고려해 산출하되 대학·전문대, 수도권·지방 등을 구분해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우 미흡 대학 중 교육의 질이 현격히 낮거나 부정·비리가 있는 대학은 퇴출하기로 했다.

/김민준기자

교장선생님의 108배 '눈물바다' 12일 오전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장가운데이 학교에서 일어난 교사의 성적 조작을 사죄하는 뜻으로 학생들 앞에서 108배를 올렸다. 이날 교장의 모습을 지켜본 학생과 교직원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연합뉴스

뉴스 & 뉴스

손 잡은 '범야' 범야권 인사들이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규탄 연석회의'를 열고 연대를 과시하고 있다. 왼쪽 오른쪽부터 김한길 민주당 대표, 천호선 정의당 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연합뉴스

범야권 연석회의 "대선개입 특검 즉각 실시"

●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등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 각계 주요 인사 100여명이 1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 등을 주장했다.

일명 '범야권 연석회의'로 이들은 국가기관 선거개입의 전모와 은폐·축소, 수사 방해 등 일체의 외압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즉각 실시 등을 요구했다.

정부, 필리핀에 500만 달러 지원·구호대 파견

● 정부는 태풍으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필리핀에 500만 달러(약 54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긴급 제공키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12일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열고, 필리핀 현지에 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해 의료 및 구조 활동도 지원키로 결정했다. 긴급구호대는 의료진 20명, 119구조단 14명, 코이카 4명, 외교부 2명 등 40명으로 구성됐다.

또 필리핀 정부의 구호대 접수가 확인되는 대로 군 수송기를 이용해 현지에 긴급구호대를 급파할 예정이다. /윤다혜기자

성폭력 저지른 공무원 연말부터 최고 '파면'

● 올해 말부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가장 무거운 파면으로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12일 고의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내리는 최고 징계를 해임에서 파면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은 48%가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다.

문형표 장관 후보자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해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12일 밝혔다.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과 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뿐 아니라 급여수준을 조정하고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상향조정하며 출산율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알바 지옥’ 프랜차이즈

100곳 중 86곳 최저임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카페베네는 위반율 98%

최저임금 미지급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의 법 위반율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소자와 대학생을 주로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씨유, GS25, 세븐일레븐, 파리바게뜨, 미니스톱, 뚜레쥬르, 롯데리아, 배스킨라빈스, 카페베네, 던킨도너츠, 엔제리너스 등 11개 업체 946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 감독을 한 결과 85.6%의 위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 565건, 금품 관련 위반 427건, 근로시간 제한 관련 위반 71건, 주지 교육 위반 869건 등 법 위반 건수가 2883건(810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곳 중 카페베네,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매장이 저임금 등 부당한 근로조건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을 가장 많이 착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이 된 카페베네 56곳 매장 중 55곳(98.3%), 배스킨라빈스 54곳 매장 중 50곳(92.6%), 던킨도너츠 57곳 매장 중 52곳(91.3%)에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줘야 할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등 근로조건을 위반하고 있었다.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위반율은 세븐일레븐 89.6%, 파리바게뜨 87.9%, 뚜레쥬르 86.5%, 미니스톱 85.5%, 씨유 84.7%, GS25 82.2%, 엔제리너스 80.4%, 롯데리아 75.8% 순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토록하는 등 시정 지시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나무에 매달린 어린이들 12일 서울 노원구 상계3·4동 산155-1번지 일대에 개장된 '유아숲 체험원'에서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 책가방에 납·니켈

12개 제품 중 4개서 검출

아동용 책가방 12개 중 4개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동용 책가방 12개 제품에 대해 물리적 안전성 및 유해성 조사를 한 결과 납과 니켈 등의 중금속이 나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브랜드 7종과 대기업 및 수입 브랜드 5종 등을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헬로키티, 점프밸리 키즈, 제노바, 보보엘리 등 4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이들 4개 제품은 중국에서 주문자 생산 방식(OEM)으로 생산된 국내 중소기업 제품이다. 그러나 이들 제품 모두 알레르기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아릴아민과 발암 물질인 폼알데하이드, 중금속 계열 카드뮴·유기 주석 화합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녹소연 관계자는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생산한 업체와 OEM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윤기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찾은 박 대통령 박근혜(가운데)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식에 참석해 칠레 식물원의 작가 칠레 바라리로부터 작품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황두연 비자금’ 본격수사… 56곳 압수수색

황두연(52·사진) ISMG코리아 대표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대종합연수원 시공업체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12일 오전 경기도 양평 소재 현대종합연수원의 시공사인 파라다이스글로벌건설 등 5~6곳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현대종합연수원은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570번지 일대 2만 9964㎡ 규모의 대지에 파라다이스글로벌건설에 시공을 맡겨 지난 7월 말 준공됐다.

그동안 검찰은 황씨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현대그룹 경영에 부당 개입해 이권을 챙겼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전방위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2011~2012년 세무조사를 통해 현대상선이 미국 내 물류업체들과 거래하면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으나 명확한 사실 규명은 하지 못하고 현대상선에 세금 30억여 원만 추징한 바 있다.

황씨는 현대상선의 미국 내 물류를 담당하는 용역업체들을 운영하며 비용을 부풀리는 식으로 거래금 중 340만 달러 상당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위탁 업무를 받으며 부당 이윤을 챙긴 의혹도 있다.

/김민순기자

동작구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서울시 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28일 삼도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주민에 대한 불필요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진경 동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선다. 문의 02)820-1491

양천구 김장 직거래장터 개장

양천구는 김장철을 맞이 15일 오전 9시~오후 5시 양천공원에서 전국 자매결연단체와 김장철 직거래장터를 개장한다.

전남 순천시, 충남 보령시, 함양군 휴천면, 무주군 안성면, 충남 논산시, 전남 해남군, 전북 무진장축협 등 9개 우호협력단체가 함께한다. 문의 02)2620-4821

강서구 내일 지식비타민 강좌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14일 오전 10시 구민회관에서 '세상을 사로잡는 힘! 매력이 경쟁력이다'라는 주제로 제81회 지식비타민강좌를 개최한다.

윤은기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가 강사로 나서 매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21세기에 나만의 매력 창조법과 매력지수를 높이는 방법 등을 소개한다. 문의 02)2600-6326

동부산 단지 골프장 조성 '착착'

토목공사 80% 완료…내년 10월 준공
2만838㎡ 골프텔 41채 건립도 탄력

부산 기장군 동부산 관광단지에 골프장과 골프텔을 조성하는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는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동부산 관광단지 안에 18홀짜리 정규 골프장인 동부산 골프앤리조트(가칭)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가 80%가량 진척됐다고 12일 밝혔다.

골프장은 내년 2월까지 토목공사를 끝내고 3월부터 잔디를 깔아 10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는 또 12월 중순부터 회원권 분양에 들어갈 계획인데 해안을 끼고 있어 경사가 완만한 데다가 6개 홀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돼 벌써 문의 전화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골프장을 따라 지하 1층~지상 4층, 전체면적 2만838㎡ 규모의 골프텔 41채를 건립하는 사업도 탄력이 붙게 됐다.

일부 인근 주민의 반발로 당초 난항이 예상됐던 건축허가가 지난달 30일 무난히 통과됐기 때문이다.

모두 75가구로 구성되는 골프텔은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3월 본격 착공한 뒤 201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산대 캡스톤디자인 대회

영산대학교(총장 부구욱)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LINC 단장 구본건)은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양산캠퍼스 문화관에서 '2013년 영산대학교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캡스톤 디자인(Capston Design)이란 '창의적 종합 설계'란 뜻으로 이공계열의 학생이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학부과정 동안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작품을 기획·설계·제작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는 교육과정이다.

이번 대회는 이공계열에만 국한되던 기존의 캡스톤디자인 교육을 법과대학, 문화산업대학을 비롯한 대학의 전 학과로 확대해서 실시한 성과물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학생들이 'TV CF 제작' 전 과정에 기업과 함께 참여한 '와이즈 유니버시티' 팀(광고홍보학과)은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 회의에서부터 녹음, 편집 작업에 나서는 것은 물론 감독직까지 맡으며 뉴미디어 환경에 최적화된 영상과 광고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광고 전략까지 선보였다.

이밖에도 시각영상디자인학과 학생들은 지역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업이미지(CI) 정리 작업이나 신제품 출시와 판촉 홍보를 위한 디자인 작업 등에 참여했다.

내일부터 '게임 축제' 지스타

국내 최대 국제 게임전시회인 '지스타(G★) 2013 (Game Show & Trade All-Round)'이 오는 14~1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부산시는 'Game Together Dream Forever'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행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32개국 512개사(2261부스)가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

게임전시회를 비롯한 비즈니스 상담회, 게임기업 채용박람회, 지스타 콘퍼런스, 비즈니스네트워크파티, 지스타 투자마켓, 지스타 가족캠프 등 게임 산업 관계자와 다양한 계층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4일간 펼쳐진다. 개막식은 14일 오전 10시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허남식 부산시장, 게임업계 CEO 등 국내외 게임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연합뉴스

해양수산연수원 비전 선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오는 14일 창조경제를 위한 새로운 비전체계를 공유하기 위한 "뉴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

연수원은 이날 '2018년까지 인재로 인한 해양사고 30% 감소'라는 새로운 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기존의 관행과 인식을 벗어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의 선두 주자가 될 것을 결의할 예정이다.

중국 총책 등 금융사기단 무더기 검거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2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금융사기 조직의 중국 총책 박모(35)씨와 국내 대포통장 공급책 정모(31)씨, 인출책 현모(30)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팔아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오모(24)씨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연진 지능범죄수사팀장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간·재능도 파는 '품마켓'

녹음광장서 14일 개최 34개 마을 참가

부산시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시청 녹음광장에서 시민, 공무원, 마을만들기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부산 품마켓 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품마켓'은 주민들이 개인별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서로 나눌 수 있는 행사다. 자신의 시간이나 재능 등 '품(노동력)'을 가지고 나와 장터를 열고 다른 마을 주민들의 상품을 사고파는 소통의 자리다. 또 교환 대금은 '복'이라는 지역 화폐를 환전해 사용하게 된다.

이번 '제2회 부산 품마켓' 참여 마을은 산복도로마을(12개)·행복마을(17개)·풀뿌리네트워크마을(5개) 등 총 34개 마을이다.

장터에서는 각종 수공예품·천연염색·천연비누·리폼 의류 등 60여 품목의 다양한 생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목공예·마을목공·원예 등 체험부스도 설치돼 직접 현장에서 체험 실습이 가능하다. 아울러 11월 27~28일(3차), 12월 5일(4차)에도 대규모 품마켓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 밖에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문화·예술 공연팀의 기타 연주, 오카리나 공연 및 부산시 3년간의 도시재생 사업 성과가 담긴 마을만들기 관련 사진 70여 점도 전시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형 도시재생마을 착한품앗이 사업인 '품마켓'의 마을 간 연대를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의 모범 사례를 확고히 확산하고 투명하고 자발적인 사업 운영으로 마을 공동체 자생·자립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1차 품마켓은 지난 8월 17~18일 양일간 성황리에 개최됐다.

/장병군기자 jbk@metroseoul.co.kr

참여의 숲 조성 헌수금 14억 '목표 1.4배'

부산시민공원 참여의 숲 조성을 위한 시민 헌수금 8억6100만원이 모아졌다.

범시민 헌수운동을 주관하는 부산그린트러스트는 13일 오후 5시 30분 시청 접견실에서 허남식 부산시장에게 헌수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에 부산그린트러스트가 기증한 헌수금을 비롯해 시민 모집 비용 1억3300만원, 상공회의소 기증 헌수금 1억3900만원, 현물 2억7500만원 등 총 14억8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부산시는 밝혔다.

이는 당초 모금 목표액 10억원을 크게 초과 달성한 것이다.

이는 옛 하이리아부대가 10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상징성 및 시민들이 기증한 나무가 역사적인 사업에 활용된다는 애향심이 범시민 헌수운동 분위기를 확산시킨 덕분으로 풀이되고 있다.

범시민 헌수운동은 부산시민공원 조성과 부산을 자연과 인간 생명, 휴식이 공존하는 그린 도시로 만들기 위한 시민 참여운동으로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시민과 향토기업, 기관·단체, 출향인사 등 총 5343명의 시민과 각계각층의 인사와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중에는 폐순전지 비용 480만원을 헌수금으로 기탁한 정덕강씨뿐 아니라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며 1000만원을 헌수한 박홍득(64) 재경부산중·고동창회 협의회장 등을 비롯해 부산어패류처리조합과 국민은행 부산본부에서 각 2000만원, 한용복 기념사업회 480만원 등 기업과 단체 등이 적극 참여했다.

특히 부산시청 옆 재활용센터 작업장에 있던 수령 100년이 넘는 녹나무(감정가 1억5000만원)와 수령 60년 이상의 메타세쿼이아(감정가 2000만원) 등 두 그루가 현물로 기증돼 시민공원의 인기 수목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뉴시스

美 핵잠수함 '투싼' 입항 미국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공격용 잠수함 투싼(Tucson, SSN-770)이 12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부두에 입항하고 있다. 길이 110m, 폭 10m, 흘수 9.3m 규모에 동력원 S6G원자로 1기(3만5000마력), 최대속도 35knots, 잠항심도 450m를 자랑하는 이 잠수함은 토마호크 미사일 수직발사기 12기, 어뢰발사관 4기, 각종 미사일과 어뢰, 특수전장비 등을 탑재하고 있다. /뉴시스

웨스틴조선 겨울패키지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 패키지'를 선보인다.

패키지 이용 고객에게는 아이리쉬 펍 오킴스에서 대표 메뉴 피쉬&칩스와 기네스 파인트 2잔이 제공된다.

또 객실 내 에스프레소 커피 메이커를 통한 보딩 커피 2캡슐과 호텔 내 레스토랑 식사 시 10% 할인, 바다가 보이는 체련장 및 수영장 무료 이용, 온천 사우나, 객실 내 24시간 데스크톱과 인터넷 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패키지 가격은 객실 타입과 방향에 따라 20만~41만원(세금 및 봉사료 별도)이다.

문의 및 예약: (051)749-7001

부산교통공사 인천공항 셔틀열차 운영 맡는다

무인경전철 운영 노하우 장점 앞세워 3년간 117억원 수주

부산교통공사가 인천국제공항 셔틀트레인 운영권 획득에 성공하면서 국내 도시철도 사업 수주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인천국제공항 내 셔틀트레인 운영 및 유지 보수용역을 3년간 총 117억원에 최종 수주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셔틀트레인(Shuttle Train)은 항공기 이용 편의를 위해 국제공항 내 탑승동과 터미널 사이 900여m를 고무차륜 무인경전철로 하루 평균 752회를 운영해 1일 평균 4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공사는 동일한 시스템인 부산도시철도 4호선의 운영 노하우를 장점으로 내세워 지난 6년간 셔틀트레인을 운영한 LS산전을 제치고 수주하게 됐다.

이에 앞서 공사는 알제리 알제메트로에서 지난해 총 68억원 규모로 발주한 알제메트로 1호선 연장 설계 용역에도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수주했으며 양산시에서 추진하는 총 4959억원 규모의 양산선(노포~북정) 경전철 사업도 타진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사장은 "국내 최초의 무인경전철인 도시철도 4호선을 운영하며 공사가 축적한 신교통 시스템 운영 경험을 토대로 인천국제공항 셔틀트레인을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2014년 1월부터 3년간 시스템 점검 및 보수, 운영 효율화 및 시설 개선, 기술 자립화 등 셔틀트레인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정하균 기자 jhk@metroseoul.co.kr

지리산자락 감국 수확 한창 12일 지리산 자락인 경남 함양군 서하면 산기마을 오균자씨의 유기농 국화밭에서 아낙네들이 국화차의 원료로 사용하는 감국 수확이 한창이다. 해발 고도가 400m가 넘는 이곳에서 관개한 국화꽃은 게르마늄 토양으로 어느 지역보다 국화의 향이 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갈채 받은 시네뮤지컬 '친구'

부산 제작발표회 열기 가득 29일부터 공연

뜨거운 부산 사나이들의 우정과 추억, 사랑을 담은 시네뮤지컬 '친구'의 제작발표회가 지난 11일 오후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부산에서 처음 제작되는 시네뮤지컬 '친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듯 이날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뮤지컬 '친구'는 (재)영화의전당과 (주)비오엠코리아의 공동제작으로 영화 '친구'를 뮤지컬로 새롭게 만든 작품이다.

출연자로는 한재모, 장민(ZA.M), 조형균, 김찬호, 김지훈, 권민수, 조윤영 등 뮤지컬계의 주목받는 실력파 신인들이 출연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제작발표회에서는 '뱃님사',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네', '유언', '친구' 등 총 4곡의 장면을 시연했다.

먼저 배우 한재모와 조윤영이 극중 준석과의 대립을 앞두고 쓸쓸함을 감출 수 없는 두 남자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진숙의 마음을 표현한 '뱃님사'를 불렀다. 이어 배우 김찬호와 조형균이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네', 배우 김보선이 '유언'을 불렀다. 끝으로 배우 김찬호와 조형균, 김지훈, 권민수가 힘든 시간을 함께하고픈 마음 깨져버린 우정과 아쉬움이 묻어나는 '친구'를 대장하게 불러 박수를 자아냈다.

배우 한재모는 "처음으로 도전하는 뮤지컬로 만나뵙게돼 영광이다"며 영화에서 장동건 선배님이 하신 동수 역을 맡아 부담이 크지만 열심히 준비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하균 기자

경남도 내년 예산삭감 탓 학생 무상급식 차질 우려

경남도의 관련 예산 삭감 탓에 교육청의 내년 학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경남도교육청은 2014년 본예산(안)에 식품비 분담금 493억원을 포함한 2601억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무상급식비는 식품비 1644억원에다 운영비 124억원과 인건비 833억원 등 총 957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도교육청은 이 예산으로 내년에 무상급식 대상을 도내 870개 학교 37만5676명(전체의 83%)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 무상급식은 2010년 당시 김두관 경남지사와 고영진 도교육감의 약속으로 시작됐다.

김 지사 등은 애초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도교육청, 경남도, 시·군이 각각 30%, 30%, 40%씩 분담하기로 정했다.

분담 비율대로라면 내년에 경남도가 493억원, 시·군이 658억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도교육청 등은 분담 비율 조정을 놓고 지난 5월부터 7차례 협의했으나 실패했고 경남도와 시·군은 분담 비율을 각각 10%포인트씩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내년도 예산에 분담비율 20%에 해당하는 329억원만 편성했다.

지난해 분담금 403억원보다 74억원 줄였고 내년에 분담해야 할 493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164억원이나 삭감한 것이다. /연합뉴스

지하철 타려면 'Up&Down' 30번

metro Russia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지하철 역사에 '앉았다 일어서기' 동작을 반복해야 승차권 발급이 가능한 이색 지하철 매표기가 등장해 화제다.

러시아올림픽위원회가 도입한 이 매표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분 제한 시간 안에 앉았다 일어서기 동작을 30회 반복해야 한다. '임무'를 완수하고 돈을 지불하면 기계에서 올림픽 마크가 새겨진 기념 승차권이 나온다.

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언론 담당관이자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올림픽 3관왕인 마리야 키셀레바는 "모스크바 시민들이 올림픽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에 이색 매표기를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키셀레바는 이어 "젊은층이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을 하고 표를 사면 한결 가벼워진 몸으로 지하철을 탈 수 있어 좋다는 반응을 보여 기쁘다"며 "시민들이 우리 프로젝트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색 지하철 매표기는 첫 선을 보인 전날 펜싱 금메달리스트인 엘레나 자보로드지코바가 가장 먼저 이용, 눈길을 끌었다. 자보로드지코바의 뒤를 이어 시민들도 속속 매표기를 이용했다.

키셀레바는 "매표기 내부에 첨단 인식 시스템이 내장돼 있다"며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횟수를 부려 표를 발급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율리야 루드카나 기자
정리=조선미기자

107세 참전용사 납시오! 11일 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의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107세의 최고령 참전 용사가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참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올해는 한국전이 끝난 지 6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한국전에 참전했던 모든 이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AP 연합뉴스

"왜 난 안 태워주나" 슈퍼 태풍 하이옌으로 폐허가 된 필리핀 레이테주 타클로반 공항에서 12일(현지시간) 생존자들이 안전지대로 이동할 수 있는 군 수송기에 먼저 타기 위해 서로 밀치고 있다. /AP 연합뉴스

'악몽의 땅' 필리핀에 미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국제사회 지원 쇄도

'앙숙' 중국은 달랑 1억

슈퍼 태풍 하이옌이 휩쓸고 지나간 필리핀을 돕기 위해 국제사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1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은 현지에 항공모함을 급파했고,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도 서둘러 복구 지원 사업에 뛰어들었다.

현재 홍콩에 정박 중인 조지워싱턴호는 필리핀을 향해 출항을 준비 중이다. 조지워싱턴호는 사흘 안에 필리핀에 도착, 의료품 등 각종 구호물자를 전달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게 된다.

앞서 미군은 전날 수송기를 동원해 레이테섬의 피해지역 이재민들에게 식량과 의료품, 식수 등을 이미 공급했다. 이와 함께 미군은 발전기와 트럭 등 중장비도 현장에 투입했다. 또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피해 복구 작업을 위해 2000만 달러를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이웃나라들도 필리핀의 피해 복구 작업을 돕기 위해 애쓰고 있다. 레 르엉 밍 아세안 사무총장은 "아세안은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필리핀 이재민들에게 공동체 정신을 보여줄 준비가 돼 있다"며 지원 계획을 밝혔다.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중국은 10만 달러(약 1억원)를 제공하기로 해 지원 규모 논란을 빚었다. 비슷한 국력의 다른 나라들이 밝힌 지원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액수가 너무 적어서다.

이런 가운데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이번 태풍 피해와 관련,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아키노 대통령은 국가재난사태 선포와 동시에 긴급대응기금 11억 페소(270억원)의 집행을 공식 승인했다.

한편 태풍 최대 피해지역인 타클로반에서 약탈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클로반 내 대형 상점과 슈퍼마켓에서 시민들이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은 물론 구호품을 실은 적십자사 차량까지 약탈 대상이 되고 있다.

필리핀 당국은 약탈을 막기 위해 자체 발포 명령을 내리고 군과 경찰 병력을 증강 배치한 상태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잊혀진 배수관으로 줄줄"

日, 과거 원전건설 때 설치후 방치…바다로 오염수 유출

"과거 원전 건설공사 때 설치한 뒤 방치한 지하 배수관이 원전 오염수 해양 유출의 원인일 수 있다."

1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후쿠시마 제1원전 지하에 묻혀있는 미지의 배수관을 통해 오염된 지하수가 바다로 흘러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지난 7월 도쿄전력이 오염수의 해양 유출을 시인한 뒤 여러 대책을 마련했는데도 원전 인근 해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가 상승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67년 토목 관련 학회지에 실린 후쿠시마 제1원전 공사 관계자의 수기를 언급했다. 수기에 따르면 원전 토목 공사 당시 지하 6m에 배수관이 설치됐는데, 이 배수관은 공사 후 제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매립됐다.

한 원전 전문가는 "지하에 남아있는 배수관을 타고 현재 오염된 지하수가 바다로 흘러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쿄전력은 "예전 배수관과 현재 오염수 사태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조선미기자

12일 도쿄에서 열린 … 회의를 주재하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올 최다 사용 英단어는?

숫자 코드 404

'404'.

올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영어 단어는 인터넷 오류 메시지와 함께 뜨는 숫자 코드 '404'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언어 조사기관 '글로벌 랭귀지 모니터'는 약 18억 명의 영어 사용권 온·오프라인 미디어의 단어와 문구 사용 빈도를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404'는 인터넷 오류를 표시할 때 사용되는 응답 코드로 '찾을 수 없다(Not Found)'는 설명과 같이 나온다.

2위 역시 인터넷 오류와 관련된 단어인 '실패(fail)'가 차지했다. 3위는 트위터에서 '#'을 붙여 주제어를 표시하는 '해시태그(hashtag)', 4위는 교황의 트위터 공식 계정인 '@Pontifex'였다.

인명과 기관명을 포함할 경우 올 한 해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청렴의 대명사로 꼽히는 '프란치스코 교황(Pope Francis)'이었다. /조선미기자

market index <12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1995.48 (+18.18)	510.79 (+7.79)	2.5% (변동없음)	1072.60 (+0.60)

전세가 평균 5억 못살겠다! 서초구

서초구 평균 전세가가 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서초구 평균 전세가는 5억256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가 2006년부터 전세가를 조사한 이래 처음이다.

2006년 1월 평균 전세가가 2억8500만원이었던 서초구는 그해 10월 3억429만원으로 3억원대를 넘었다. 그 후 2011년 3월 4억2180만원으로 4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32개월 만에 5억원을 돌파했다.

김미선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서초구는 전통적으로 주거환경 만족도가 높은 지역인 데다, 특히 반포동 일대 반포자이와 래미안퍼스티지 등 대규모 재건축 단지가 입주한 뒤 평균 전세가가 크게 올랐다"고 분석했다.

한편 서초구와 마찬가지로 2011년 3월 평균 전세가 4억49만원으로 4억원을 넘어섰던 강남구는 11월 현재 4억5629만원을 나타냈다.

/백선욱기자

번호이동 뜨거웠던 주말…13만건 육박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 보조금 강력 대응 엄포에 잠시 멈췄던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이 지난 주말 또다시 달아올랐다.

1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9~11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번호이동 건수(알뜰폰 제외)는 12만712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인 2~4일 번호이동 건수(4만2143건) 대비 3배 이상 많은 것이다.

보통 주말은 0.75일로 계산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기간 하루 평균 번호이동 건수가 5만651건에 달한 셈이다. 이는 방통위가 시장 과열 기준으로 삼는 하루 평균 2만4000건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ECB발 환율전쟁 전운 감돈다

금리인하 단행 직후 체코 당국, 외환시장 개입 결정…각국 경계감 확산

유럽중앙은행(ECB)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가 글로벌 환율전쟁에 불을 붙였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ECB의 금리 인하가 단행된 직후 체코가 11년만에 처음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체코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05% 수준으로 동결하고 외환시장 개입을 결정했다. 미로슬라프 싱어 체코 중앙은행 총재는 "적정 환율을 위해 11년 만에 코루나화의 매각에 나섰다"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외환시장 개입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체코 중앙은행의 결정이 발표된 후 코루나의 가치는 4% 이상 급락했다. 호주 역시 미국 달러화에 대해 우려 27% 고평가된 상황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은행(BOJ)의 공격적인 자산 매입에 나섰을 때와 비슷한 경계감이 주요국 중앙은행 사이에 퍼지고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환율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ING그룹의 레인 뉴먼 외환디렉터는 "ECB가 환율전쟁을 부추긴 셈"이라며 "이번 금리 인하가 유로화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란 사실을 인식하고 결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선진국이 또다시 환율전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도 주목되고 있다. 오는 14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일단 금통위가 환율 방어를 위해 통화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환율은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금융시장 보고서를 통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감으로 환율이 상승할 것"이라며 "다만 고점 매도 대기 물량과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 유입으로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형중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출 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자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 연평균 환율은 1060원, 연말 환율은 1045원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기지개 켠 코스피 "다시 뛸 준비!"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18.18포인트 오른 1995.48로 마감, 2거래일 만에 상승한 12일 오후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편집인 남근호
사회 편집인 김승현
편집국장 조인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익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11~3
부산광고문의 051)350-2100
독자센터 02)721-9801

IT반도체·소비주 노려라

3분기 실적에 실망한 투자자 위한 향후 기대주

상장사들의 3분기 실적 시즌이 부진한 성적표로 마무리되자 시장의 관심은 빠르게 4분기 실적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4분기 실적 전망치도 연일 하향 조정되면서 향후 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기업들의 실적은 올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외국인들 수급이 유지되면서 주가는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분석했다.

12일 SK증권에 따르면 현재 증권사 1곳 이상의 실적 추정치가 있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모두 합하면 34조4350억원이다. 이는 한 달 전 전망치와 비교해 4.4% 줄어든 액수다.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부진하자 증권사들이 너도나도 4분기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낮춘 데 따른 여파다.

업종별로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가장 많이 깎여진 곳은 전력 IT(반도체 제외), 산업재, 음식료 등이다.

IT 디스플레이 업종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한 달 새 30.9% 감소했고 유틸리티(-29.2%), IT 장비(-21.4%), 상사(-20.6%), 운송(-17.8%), 조선(-15.6%), 건설(-11.35%) 등도 줄줄이 전망치가 내려갔다.

반면 전체 28개 업종 중 반도체, 자동차, 소비 관련 등 7곳만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다. IT 반도체의 전망치 상향폭이 0.7%인 점을 고려하면 뚜렷한 실적 강세는 아니지만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있을 전망이다. 소비 관련 업종이 특히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조윤남 대신증권 연구원은 "내년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최근 몇 년간의 소비 위축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원화 강세 현상도 지속되면서 이마트 등 소비 관련 종목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또 국내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내년에도 긍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조 연구원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 단행과 더불어 기준금리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오면, 글로벌 시장에서 돈의 흐름이 채권 등에서 주식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라며 "현 시장 상황에서 외국인이 종위험·중수익을 실현할 만한 해외시장이 딱히 한국 정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코스피에 국내 자금이 유입되기 어려우나 박스권(1750~2150)을 뚫고 2200선만 넘어간다면 국내 자금이 물밀 듯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내 증시의 투자자들에겐 새 고점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생기는 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스마트폰 구입전 가상체험 하세요 SK텔레콤은 온라인 스마트폰 구매 고객들에게 가기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성능·기능 문제 등을 고객 스스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폰 가상체험 서비스를 12일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제공

이석채 사표…KT 노조 "낙하산 그만"

KT가 표현명 대표이사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그동안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석채 KT 회장은 12일 이사회에서 사표를 제출, 이사회가 이를 전격 수리했다. 이에 따라 KT는 경영 공백 최소화를 위해 표현명 사장(T&C부문장)을 대표이사 회장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이로써 2009년 1월부터 시작된 이석채 회장 체제도 4년10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한 이 회장의 임기는 2015년 3월까지였다.

KT는 다음주 초 이사회를 열고 정관에 따라 최고경영자(CEO) 추천위원회를 구성, 후임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CEO 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7명 전원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는 KT 관련 민주노총 소속 노조와 감시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회장의 후임 회장 선출과 관련 "더 이상 낙하산 인사가 아닌 통신 공공성과 통신 전문성에 부합하는 인물이 선임돼야 한다"며 KT 이사회에 면담 요청한 것에 대해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재영기자 ljy@

외관에 많은 변화를 준 신형 제네시스의 렌더링 이미지 /현대차 제공

옆태 아우디A7… 뒤태 렉서스GS

베일 벗은 신형 제네시스
현대차 최초 승용 4륜구동

올 연말 국내에 데뷔하는 현대차의 신형 제네시스의 실물 사진이 해외에서 포착됐다. 최근 월드카펀닷컴에 따르면 신형 제네시스는 독일 뉘르부르크링 서킷에서 막바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형 제네시스는 여러 차종의 디자인이 섞인 모습이어서 이를 본 누리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앞모습은 아우디 A7과 닮은 벡사마를 섞은 모습이고, 측후면은 아우디 A7을, 후면은 렉서스 GS를 닮았다는 평가가 많다. 다른 차를 많이 닮지 않았던 현재의 제네시스와 차이 나는 부분이다.

신형 제네시스는 구형과 달리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다각도에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눈이 많이 내리는 북유럽 지역을 겨냥해 현대차 최초의 승용 4륜구동 시스템인 에이치트랙(HTRAC)을 장착한 것이 특징이다.

또 ▲운전자가 스마트키를 가지고 차량 후방에 접근 후 3초간 대기할 경우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는 스마트 트렁크 ▲레이더와 카메라를 활용해 전방 차량의 움직임을 감지해 추돌 방지 및 위급 상황 시 차량을 자동으로 정지시켜주는 AEB(Autonomous Emergency Braking) 시스템 ▲규정 속도로 주행 중 도로 정보를 활용해 규정 속도에 따라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동감속 기능 ▲실내의 CO_2 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해 실내를 쾌적하게 유지하고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스마트 에어컨 등이 적용됐다.

신형 제네시스는 올 연말 국내에 공개되고 미국 시장에는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데뷔할 예정이다.

/송학주기자 hakju@

실속대표 중소형APT '럭셔리 바람'

집사 서비스에 BBQ파티장까지 분양가 상승 우려

'실속'으로 대표되던 중소형 아파트 시장에 최근 '스몰 럭셔리' 바람이 불고 있다. 중대형 못지않은 차별화된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높아진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충족하고, 주거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럭셔리 바람을 타고 중소형의 분양가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이달 공급할 강동구 천호동 '래미안 강동팰리스'에 컨시어지 서비스를 적용키로 했다. 컨시어지란 중세시대의 하인을 가리키는 말로, 일종의 집사 서비스를 의미한다. 주로 호텔에서 적용되며, 공동주택에서는 국내 최고가로 꼽히는 '갤러리아 포레'가 선보이고 있다. 99%가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으로 이뤄진 단지임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서비스다.

대림산업이 서초구 반포동에 재건축한 '아크로리버 파크'는 천장 높이를 기존 아파트보다 30cm 높은 2.4m의 펜트하우스급으로 설계했다. 또 대우건설은 남양주시 별내지구와 서울시 관악구 봉운동에서 '푸르지오'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세대 내 테라스를 바비큐파티장, 정원 등으로 활용 가능한 중소형 테라스 하우스를 적용했다.

문제는 분양가다. 단지들 고급화하는 과정에서 공시비가 오를 경우 분양가도 덩달아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최근 중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면서 건설사들이 중대형보다 높은 몸값을 책정하는 추세다.

앞서 삼성물산이 공급한 '래미안 대치청실'의 경우 가장 작은 전용 59㎡ 평균 3.3㎡ 분양가가 4590만원대에 달했다. 이어 84㎡가 4220만원대였고, 94㎡가 가장 낮은 3930만원대를 기록했다.

이처럼 중소형과 중대형의 3.3㎡ 분양가가 역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럭셔리' '프리미엄' 바람까지 가세할 경우 중대형에 이어 중소형까지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MS '광화문 시대' 활짝

한국본사, 더케이트윈타워로 이전 '분위기 쇄신'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신사옥에서 제도약을 꿈꾼다.

한국MS는 12일 서울 광화문 더케이트윈타워에서 신사옥 설명회를 열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한국MS 본사는 15년 넘게 강남 포스코센터에 위치했다. 현재 MS는 구글의 매서운 추격과 윈도8.1의 호환 논란 등으로 사세가 주춤한 상태다. 올해 한국 진출 25주년을 맞은 한국MS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격언처럼 신사옥 이전으로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입장이다.

김 제임스 한국MS 사장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닌 디바이스&서비스 회사를 지향한다"면서 "개인과 기업의 업무를 언제 어디서나 디바이스와 서비스로 구현시킨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국MS는 근무 공간 확충 등의 이유로 약 3년 전부터 이전 준비를 했다. 관료, 잠실 구로 등이 물망에 올랐지만 건물 확보와 지리적 상징성을 고려해 광화문 사옥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한국MS 사무실 총 6개 층 가운데 4개층은 직원 전용 공간인데 지정석이 없다. 직원들은 윈도폰과 태블릿PC 서피스 등으로 움직이며 근무한다. 각 층마다 있는 탁구대 당구장, X박스 게임장 등의 휴식 시설이 눈에 띄었다.

구조를 기획한 한국MS 정우진 컨설턴트는 "직원들이 경직된 상태로 근무하면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면서 "프리스타일 근무 공간은 부서 간 벽을 없애 시너지 효과도 낸다"고 설명했다. 또 "신사옥 구조에 대해 임원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들 만족해 한다"면서 "업계에서 'MS 살아있네'란 평이 나오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은희기자 unique@

'제2삼성전자' 커간다

대기업들, 유망 협력사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나서

#사례1-삼성전자는 제조 기술 경영 등 경쟁력 있는 협력사 중 14개사를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 이 회사는 협력사에 개발자금 42억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협력사가 기술 개발에 실패해도 투자 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금융권과 연계해 국내외 설비투자 및 운전자금 1000억여 원을 지원으로 대출해준다.

#사례2-두산중공업은 협력사의 생산성 혁신, 품질 향상, 작업환경 개선 등의 분야에서 협력사의 경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협력사 경쟁력강화 지원단'을 구성하고 경영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난 1년간 두산중공업으로부터 지원받은 28개 유망 협력사는 제조원가가 83.0% 경감되고, 종합 설비효율이 26.9% 향상됐다.

◆대기업이 키우는 295개 협력사

경쟁력을 갖춘 협력사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우는 대기업이 늘고 있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최근 진행한 조사에서 국내 21개 대기업이 295개의 유망 협력사를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이유로 ▲협력사가 우수한 기술력과 마케팅력을 갖추면 대기업이 경쟁사보다 시장 선점에 유리하다 ▲협력사의 경영 성과가 높아지면 사업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다 ▲대·중소기업 간 신뢰관계 강화로 공동체 의식이 높아진다 등을 들었다.

또 대기업이 육성하는 295개 협력사의 최근 경영 성과를 보면, 연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각각 10.3% 10.2%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 제조업체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8.6%)과 영업이익 증가율(3.4%)보다 각각 1.7%포인트, 6.8%포인트 높은 수치다.

협력사 육성 방법으로는 ▲거래 물량을 늘려주거나 장기 계약을 체결 ▲경영 컨설팅과 기술 지도 등을 통한 생산성 개선 ▲보증·대출 등 운영자금 지원 ▲해외 동반 진출 등 마케팅 지원 등이다.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탄탄한 기술력을 갖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소기업을 많이 키워내야 제2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균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바이오 씨드 멀티플립PC' 공개 행사 모습. /연합뉴스

'3단 변신' 노트북 눈길

노트북·태블릿·뷰어로 자유자재 변신이 가능한 컨버터블 PC가 등장했다.

소니코리아는 12일 서울 이같은 장점을 지닌 '바이오(VAIO) 피트 멀티플립PC' 제품군을 선보였다.

이 제품군은 화면을 앞뒤로 180도까지 꺾을 수 있어 타자를 칠 때는 노트북,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보거나 웹서핑을 할 때는 태블릿 PC처럼 사용할 수 있다. 키보드를 뒤쪽으로 90도 정도 꺾으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화면을 보는 뷰어 모드로도 쓸 수 있다. 가격은 13A 제품이 184만9000~234만9000원, 15A 제품이 194만9000~244만9000원이다. /서국현기자 kmjwo@

부영, 연대 기숙사 기공식

부영그룹(회장 이중근)과 연세대학교(총장 정갑영)는 지난 11일 서울 연희동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학생기숙사인 우정원 신축 기증을 위한 기공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과 연세대학교 김석수 재단이사장을 비롯해 정갑영 총장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우정원은 이 회장의 아호인 '우정'에서 이름 붙여졌으며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6600㎡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내부에는 2~3인용과 장애인용 기숙사 169실(수용 인원 415명) 및 학습실, 세미실 등 다목적 교육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서울 연희동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학생기숙사 '우정원' 기공식 행사 후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학교 측은 우정원 건립으로 기숙사 수용률이 크게 높아져 지방 학생들의 주거난 해소와 면학 분위기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선옥기자

NH카드로 전국 교통 결제

NH농협카드가 오는 14일부터 울릉도를 포함한 전국에서 후불교통카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후불교통 결제 기능이 탑재된 농협(채움 브랜드) 신용·체크카드 한 장으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전국의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농협카드는 지난 9월 13일 내륙 지역 중 마지막으로 대구지역 후불교통카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에 울릉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면서 전국에서 농협카드(채움 브랜드) 후불교통 서비스 표현이 가능해졌다.

후불교통 기능이 탑재된 농협(채움 브랜드)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은 별도의 조치 없이 바로 전국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해당 카드가 없는 경우 가까운 농협 영업점에서 발급을 받아 이용하면 된다. /김은지기자 mine@

강남보금자리 '소비의 중심'될 복합상가

리더스프라자 상가 분양

서울 세곡동 강남보금자리지구에서 '강남 리더스프라자' 상가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8층, 연면적 1만2900㎡ 규모로 강남지구 내 처음으로 들어서는 복합상가다. 약 50개 매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상가가 들어서는 강남지구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 총 1만7000여 가구와 다양한 기업체가 입주하게 될 신흥 주거벨트다. 특히 '강남 리더스프라자'는 헌릉로변에 붙어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풍부한 배후 수요와 유동인구를 동시에 갖췄다.

상가 1층은 12월 준공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마트에브리데이를 비롯해 파리바게뜨, BBQ카페, 약국, 이동통신매장 등으로 선임대 및 분양 완료됐다. 2층은 은행, 베이커리, 음식점 등으로, 3~5층은 병·의원 전용으로 구성됐다. 6~8층에는 사무실, 학원, 피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 연습장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상가는 이용 고객과 입점자의 편의를 고려해 지하에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 주변 다른 상업용 건물과 차별화했다. 또 옥상에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해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설계했으며 오염 물질을 거의 방출하지 않는 마감재 및 접착제 등을 사용했다. 외벽은 단열 효과가 뛰어난 특수 유리로 시공됐다. 문의 02)3412-4482 /박선옥기자

"티몬, 한국 1위 만들것"

에릭 그루폰 CEO "수익보다 성장에 초점"

국내 대표 소셜커머스 기업 티몬이 12일 글로벌 1위 소셜커머스 브랜드 그루폰에 인수된 배경을 설명했다.

티몬은 그루폰을 추격하는 북미 2위 업체인 리빙소셜의 품에 있었지만 최근 그루폰과 전략적 인수 합병(M&A)을 계결하며 100% 자회사가 됐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연 신현성(29) 티몬 대표는 "연간 거래액 1000억원, 누적 판매 1억 건을 돌파하는 등 최근 2년간 플러스 경영을 해왔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자본잠식 외 문제가 아닌 더 나은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그루폰을 파트너로 삼았다"며 이번 M&A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날 전격적으로 내한한 그루폰의 에릭 레프코프스키(44)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티몬과 같은 강력한 경쟁자가 있어서 그루폰코리아가 한국에서 4위에 그친 것 같다. 티몬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현 티몬 경영진과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에릭 레프코프스키(왼쪽) 그루폰 CEO와 티몬 신현성 대표.

–티몬은 아시아 사업용 플랫폼인가

에릭–해외 48개 지사 중 12개시가 아시아에 있다. 티몬이 아시아 사업의 키 역할을 할 것이다. 아시아 국가의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도 신 대표와 함께 인수할 것이다.

–그루폰 재무 상황과 투자 여력

에릭–부채는 없고 현금 11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예상 성장 목표를 달성했다. 성장률이 10%대로 둔화하긴 했지만 그래서 티몬을 인수한 것이다.

–매각가가 2년 전 리빙소셜 인수 당시인 2500억원대로 알려졌는데 지금은 실적이 그때와 달리 좋은데.

에릭–리빙소셜에 우리가 먼저 인수 제안을 했다. 티몬과 같은 매력적인 업체는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픈마켓 대응 방안은

신–제한된 수량과 시간에서 물건을 팔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저렴하다. 오픈마켓에서 상다수 등 검색하면 믿을 수 있는 공급자를 찾기 어렵지만 우린 이미 엄선해놓았다. 고객이 원하는 딜을 파악해 제공한다. 특히 모바일 유저를 위한 편리한 쇼핑에 치중할 예정이다.

–그루폰코리아 흡수 통보는

에릭–신 대표와 그루폰코리아 경영진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티몬이 한국에서 확실한 1위를 할 수 있게 그루폰코리아가 지원할 예정이다.

–5월부터 기업 매각을 계획했는데 국내 대기업이 아닌 그루폰을 선택한 이유

신–많은 회사가 관심을 보인 건 사실이다. 당장의 수익보다는 한국에서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는 비전에 공감한 업체가 그루폰이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악마를 가둔 와인 '말리뇨' 맛보세요 1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선시와인이 보관을 청 모델들이 프랑스 레드 와인 '말리뇨'를 선보이고 있다. 와인 애호가들에게 '악마를 가둔 와인'으로 불리는 말리뇨는 천사가 악마를 제압해 술병에 넣었다는 전설에 따라 라벨에 보에 갇힌 악마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연합뉴스

착한 가격에 원두의 맛과 향은 그대로

프리미엄 스틱 커피 뜬다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높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다. 불황에도 끄떡없던 커피 시장이 6년 만에 첫 하락세를 타며 커피전문점 매출이 2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비싼 커피전문점 대신 합리적인 가격의 인스턴트 커피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커피 본연의 맛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스틱형 커피가 속속 출시되며 커피 마니아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동서식품 카누(KANU)는 프리미엄급 마일드 원두종인 콜롬비아 과테말라·코스타리카 원두를 블렌딩해 중남미 마일드 원두의 풍부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스틱형 포장으로 간편하게 원두커피의 신선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다.

동서식품 '카누', 롯데칠성음료 '칸타타 스틱커피', 다비도프 카페 '리치아로마 인스턴트 스틱', 남양유업 '루카(Lucka)'(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각사 홈페이지

디비도프 카페 '리치아로마 인스턴트 스틱'은 남미와 동아프리카의 원두를 사용해 풍부하고 강렬한 맛을 자랑한다. 100% 아라비카 원두로 만들어졌으며 해발 고도 900~1800m의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원두만을 사용한다. 디비도프 카페 소믈리에는 특별한 맛의 조화를 이루는 블렌딩을 위해 최상의 조건에서 자란 커피빈만을 골라 최고급 커피를 만든다.

롯데칠성음료 '칸타타 스틱커피'는 100% 아라비카 커피를 추출해 향마개보강 시스템 방식으로 제조한 솔루블 커피에 미세 원두분말을 첨가 커피의 깊고 진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

남양유업 '루카(Lucka)'는 원두커피 특유의 크레마(커피잔 위에 생기는 거품)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 루키가 용해 용량 200㎖에서 최적의 맛을 내는 것과 달리 용해 용량이 120㎖가 됐을 때 최적의 맛을 낼 수 있도록 설계한 소용량 제품인 '루카 쁘띠'도 선보였다. /장윤희기자 yunne@

뉴스 & 뉴스

아동돕기 '글로벌 김장봉사'

■ **CJ그룹**은 12일부터 4일간 일정으로 전 계열사 임직원 1400여 명과 각국 주한대사 가족, 재한 외국 유학생 100여 명이 참가하는 '글로벌 김장 봉사' 행사를 시작했다.

이 행사는 전국 18개 사업장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5만 포기의 배추김치를 담가 'CJ도너스캠프'에 참여하고 전국 2000여 개 공부방 참가 아동 6만 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비버리힐즈에 스토어 개선

■ 프리미엄 비즈니스캐쥬얼 브랜드 '**닥크**'는 12일 미국 명품패션의 중심지 비버리힐즈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첫 오픈했다고 밝혔다.

242㎡(73평) 규모로 한국미를 살린 고급스럽고 모던한 갤러리 스타일로 디자인됐고, 브랜드 콘셉트와 방향을 보여주면서 비즈니스패션 문화를 리드하기는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알뜰폰 온라인 전용관 오픈

■ **인터파크**는 12일 알뜰폰(MVNO) 전용관을 오픈했다. 전용관에 입점한 알뜰폰 사업자는 CJ헬로모바일, 세븐모바일(SK텔링크), 스오누콘(온세통신), freeT(프리텔레콤), tplus(한국케이블텔레콤), 플러스모바일(홈플러스) 등이다.

인터파크 알뜰폰 전용관에서 판매되는 단말기는 총 11종으로 인터파크 큐브, 갤럭시 에이스 플러스 등 3G 스마트폰과 함께 와인샤베트 같은 저렴한 폴더폰까지 준비됐다.

'신입사원은 20대' 공식 옛말

피든지드로 사워한 거위털 패딩 아웃도어 브랜드 밀레 대표 한철호 는12월 새롭게 출시한 피든지드 다운재킷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그린지드 원액을 마이크로 캡슐처리 다운과 혼합하는 방식으로 반영구적인 항균 및 소취 효과를 가진다고 밀레 측은 밝혔다.

눈높이 안맞아 스펙 쌓느라 30대 늦깎이 지원 35% 달해

채용시장 선호 인재도 변화 실전 바로 투입 올드루키나 고졸인력 뽑는 기업 증가세

"이러다간 취업 시장에서 올드루키(경력 있는 신입)와 예순이만 살아남겠네."

최근 취업 시장에서 이 같은 하소연이 들려오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파고 때문에 힘겨워하는 기업들이 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올드루키나 고졸 인재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취업 시장의 주축이던 대졸 20대 신입 구직자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은 778개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신입사원 모집 때 30대 지원자 비율이 평균 35%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30대인 셈이다. 응답자의 84%가 30대 지원자가 있다고 답했으며 76%는 신입사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것을 체감한다고 했다.

신입사원 연령이 높아지는 원인으로는 다수가 '너무 높은 취업 눈높이'(43%)를 꼽았으며 '과도한 학력 인플레'(15%), '괜찮은 일자리 부족'(13%), '과도한 스펙 경쟁'(12%), '계획 없는 휴학과 졸업 연기'(10%)가 뒤를 이었다.

반면 고졸 취업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010년 출범된 이후 올해 첫 졸업자를 배출한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은 무려 90.3%에 달했고 특성화고는 38.4%를 기록됐다. 전체 고졸 취업률은 37.8%,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이 같은 현상은 갈수록 확산될 전망이다. 수도전기공고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을 맺고 에너지 분야 인재를 육성하며, 부산자동차고는 르노삼성자동차 등과 협약을 맺고 있다. 현대자동차도 마이스터고 2학년생 중 우수 학생을 선발, 직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두산그룹은 역시 연계 학교에 두산반을 만들어 입사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업무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성적이 우수한 인원을 채용한다.

이 같은 구직자 연령 양극화 현상은 최근 급격히 높아진 중도 퇴사율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이와 직급이 뒤섞이다 보니 사내 갈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9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입 경력사원 채용실태 특징조사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은 23.6%로 1년 만에 7.5%나 높아졌다.

이에 대해 한 취업포털 관계자는 "대졸 신입사원 고령화나 고졸 채용 확산 모두 취업의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삼성고시생' 위한 SNS드라마 6부작 '무한동력' 시선 끌리네

삼성그룹에 입사하려면 '무한동력'을 봐라.

앞으로는 이런 말이 유행할지도 모르겠다. 삼성그룹이 12일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의 애환을 위로하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SNS 드라마 '무한동력'을 방영하기 시작한 덕분이다.

주호민 작가가 그린 동명의 인기 웹툰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는 주인공 장선재가 삼성그룹 신입사원 공채에 도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 6부작이 방영되는 동안 삼성그룹이 추구하는 인재상과 삼성그룹의 채용 과정 전반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아이돌그룹 2AM의 임슬옹과 배우 김슬기의 실감 나는 연기도 볼거리다.

'무한동력'은 삼성그룹 블로그와 유튜브는 물론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김현정 기자의 두잡 체험기

제과 제빵 ⑧

과자맛을 춤추게 하는 '프랑스 기후'

연재 막바지인 이번 회에서는 지난주에 예고했던 대로 프랑스 제과의 레시피가 일반 제과와 다른 점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먼저 기후적으로 프랑스와 한국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맛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밀가루도 현지산이 국내와 다른 데서 오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가령 프랑스 북서부에 위치한 브르타뉴 지방의 발효 과자인 '쿠니 아망'의 경우 프랑스의 건조한 기후에서는 페이스트리와 특유의 바삭바삭한 식감이 잘 살아나지만 상대적으로 습한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쿠니 아망의 바삭함을 살리고 싶다면 기존 레시피에서 쿠니 아망의 반죽을 3번 정도 접어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몇 번 더 접어주면 된다. 또 버터와 설탕 첨가량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오븐에 굽기 직전의 쿠니 아망 반죽 위에 생크림을 끼얹고 있다. /김현정기자

프랑스 현지에서는 풍부한 맛을 살리기 위해 생크림을 활용하기도 한다. 쿠니 아망의 반죽을 하나씩 떼어내 모양을 잡고 상온에서 발효시킨 뒤, 오븐에 넣기 전에 개별 반죽에 끼얹으면 된다.

브르타뉴 지방의 크레이프 제과인 '파르 브르통'은 현지 밀가루가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박력분으로는 그 맛을 재현하기 어렵다. 한국의 박력분은 입자가 굵고 수분이 많은 데 반해, 현지 박력분은 입자가 더 곱고 수분도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베이커리에 따라 현지산과 유사하게 자체 개발한 박력분을 쓰기도 한다.

파르 브르통에서 기억할 점은 박력분, 설탕, 소금, 달걀, 우유 등을 섞은 반죽에 럼주를 첨가하는 시점이다. 럼주의 술 향을 느끼고 싶으면 오븐 틀에 반죽을 넣기 직전에 붓고, 그렇지 않으면 반죽 단계에서 다른 재료와 함께 섞어주면 된다.

쿠니 아망을 포함해 브르타뉴 지방의 대부분 과자는 만들 때 반죽의 재료로 럼주 등의 술이 들어간다. 과자에 술을 곁들여 먹기도 한다. 파르 브르통의 경우 코냑과 가장 궁합이 좋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한다.

/hjkim@metroseoul.co.kr

신선한 아이디어 탄탄한 스토리

지상파 안 부러운 '케이블의 반란'

'응사' 최고시청률 8.6% - 히든싱어 6.2% '고공행진'

신선한 소재와 탄탄한 스토리를 갖춘 케이블 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이 지상파를 위협하고 있다.

tvN '꽃보다 할배'(이하 '꽃할배')를 비롯해 '응답하라 1994'(이하 '응사'·사진)·JTBC '히든싱어' 등은 연일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지상파 프로그램에 버금가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9일 방송된 '응사'는 평균 시청률 7.1%, 순간 최고 시청률 8.6%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대에 방송되는 지상파 주말드라마인 SBS '열애'(10일=7.1%)와 MBC '사랑해서 남주나'(10일 8.7%)와 견주어도 전혀 밀리지 않는다.

특히 '응사'는 차별화된 소재와 신인 연기자들의 발칙 앙상블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3040세대에게 추억을 전하는 동시에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함을 주고 있다.

방송가에 오디션 열풍을 몰고 온 엠넷 '슈퍼스타K'에 이어 '히든싱어 2'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9일 방송된 '히든싱어 2-주현미 편'은 6.2%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같은 시간대 방송되는 MBC '세바퀴'(6.9%), KBS2 '인간의 조건'(7.7%), SBS '그것이 알고 싶다'(6.2%)와 큰 차이가 없는 수치다. JTBC 예능 프로그램 '유자식상팔자'(6.5%)도 비슷한 시간대 방송중인 SBS '심장이 뛴다'(3.0%)를 넘어섰다.

KBS 대표 예능 프로그램 '1박2일'의 전성기를 이끈 나영석 PD는 CJ E&M으로 옮긴 후 배낭 프로젝트 1탄 '꽃할배'를 히트시키며 예능계의 판도를 바꿨다. 이달 방송을 앞두고 있는 2탄 '꽃보다 누나' 역시 출연진과 촬영 장소 등이 이슈가 되며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 드라마·SNS 드라마 등 전통 플랫폼을 벗어난 콘텐츠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안방극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던 지상파 프로그램의 약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유순호기자 ssw@metroseoul.co.kr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저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촬영중 급체, 고수 안마 덕 나아"

'집으로 가는 길' 전도연

처음으로 작품에서 호흡을 맞추게 된 배우 전도연과 고수가 실제 부부 이상의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영화 '집으로 가는 길'에서 고수와 부부로 출연하는 전도연은 12일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고수의 따뜻한 배려에 특히 좋은 인상을 받았다며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촬영을 하다 급체를 했다. 정말 어지러웠는데 내가 나을 때까지 고수씨가 안마를 해줬다. 고마움이 깊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반면 고수는 "원래 좋아하는 배우고 함께하고 싶었던 전도연씨가 출연한다고 해서 영화를 선택했다"고 화답하며 "전도연씨가 정말 아팠다. 더운 나라에서 촬영하는데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더라. 그럼에도 아프다고 표현을 안 했다. 그래서 손을 주물러줬다"고 말했다.

12일 압구정 CGV에서 열린 영화 '집으로 가는 길'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배우 전도연(왼쪽)과 고수가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다음달 19일 개봉하는 '집으로 가는 길'은 국제 범죄조직의 마약 운반책으로 오인돼 재판도 없이 대서양 마르티니크 교도소에 수감된 평범한 주부와 아내를 구하기 위해 세상에 호소하는 남편의 이야기를 그린다. /유순호기자 sunn@

'올드보이' 10년만에 재개봉

박찬욱 감독의 영화 '올드보이'가 10년 만에 재개봉한다.

재개봉 버전은 2003년 개봉 당시에는 불가능했던 디지털 색보정 기술을 통해 보다 더 미세한 손길과 작업으로 탄생했다. 10년 전보다 더 좋은 색깔, 더 깨끗하고 세련된 상태의 화면을 만날 수 있다.

두 남자의 얽히고설킨 복수를 다룬 '올드보이'는 한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했다. 스파이크 리 감독이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한 '올드보이'도 이달 27일 미국 전역에서 개봉된다.

/유순호기자

부산 · 함부르크 · 상해 만남의 교류전

2013년 12월 3일(화) – 12월 22일(일) 부산진(기차)역

부산광역시 DAVIN art space 다빈예술공간협회 함부르크시문화국 상해미술가협회 협찬 BS 부산은행 대선주조

새로 나온 책

소설

이중섭 최운희/다산책방

한국의 낙천을 빛나 올린 천재 화가 이중섭의 삶을 되살려낸 작품으로 예술혼에 사로잡힌 그의 생애를 밀도 있게 그려냈다. 불꽃과도 같은 예술혼을 불태웠던 그의 삶과 나약하고 힘없는 자들의 울음을 사랑했던 그의 세월을 엿볼 수 있다.

난징의 악마 모 헤이더/뮐스

일본이 저지른 잔혹한 역사의 진실을 그렸다. 주인공 그레이의 1인칭 시점으로 전개되는 1990년과 대학살의 생존자 스즈의 교수의 1인칭 시점으로 전개되는 1937년의 이야기가 번갈아가며 진행된다.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인간의 원초적 악마성을 고발한다.

실용

근육운동가이드 프레데릭 데라비에/삼호미디어

국제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200가지 이상의 웨이트 동작과 50가지 이상의 특화된 운동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해당 동작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자세를 생생한 사진으로 보여주며, 해부학적 일러스트를 통해 근육의 수축 원리를 설명한다.

어린이

만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 1~3 베르나르 베르베르/꿈꾼책들

프랑스 인기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을 원작으로 한 만화로 총 세 권으로 이뤄졌다. 원작 '상상력 사전'은 기묘한 지식·잡연·일화·단상 등을 담았는데, 만화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와 관련한 내용이 많다.

뭘 써요, 뭘 쓰라고요? 김용택/한솔수북

김용택 시인이 13년 동안 전국 곳곳을 돌며 강연이나 방송을 통해 글을 쓰고 싶어 하고,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는 아이들과 어른들을 만나 나눈 이야기를 담았다. 시골 아이들의 선생님으로, 시인으로 살아가는 저자의 글쓰기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정치·사회

셰어하우스-타인과 함께 사는 젊은 이들 구보타 히로유키 지음/클

최근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신 주거 방식으로 떠오른 셰어하우스에 대해 소개한다. 셰어하우스란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닌 타인 여럿과 한집에 사는 방식을 말한다. 침실과 같은 개인 공간을 따로 두고, 거실·화장실·주방은 함께 사용한다.

건강

청결의 역습 유현규/김영사

현직 PD인 저자가 지나친 청결 습관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SBS스페셜 '99.9% 살균의 함정' 편의 내용에 추가 정보를 엮어 펴냈다. 저자는 면역 작용을 조절하고 아토피피부염을 치료하는 등 좋은 세균의 작용을 소개한다.

시·에세이

다행이야 너를 사랑해서 양광현/시와

저자는 청춘이 시집에 사랑에 빠지거나 숙고하게 될 삶의 감정들을 '사람', '꿈', '죽음'의 문학적 테마로 나눠 46편의 시와 함께 따뜻한 해설을 수록했다. 해당 테마의 시들 '같이 읽는 '여마음기'와 좋은 시를 고르는 방법', '시 어떻게 읽을까' 등 저자는 시 읽는 즐거움을 역설한다.

도산잡영 퇴계/연암서가

'도산잡영'은 도산(서당)에서 '이것저것을 생각나는 대로 시로 읊다'는 뜻으로, 퇴계 이황이 도산서당에서 거처하면서 직접 읊었던 한시 40제 92수를 모은 시집이다. 주자에 근거해 제자들이 연구하고 강학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행운을 부르는 20가지 습관 더글라스 머리/시그마북스

탁월한 삶을 살고 있는 여섯 명의 인터뷰를 통해 행운을 부르는 습관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준다. 행운을 부르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단호한 현실주의자들이다. 그들은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한다.

좌절 따윈 사하라에 맡겨

마흔줄 접어든 두 남자의 지옥 레이스 체험 에세이 극한 속 사투 통해서 얻은 날것 그대로의 지혜 '신선'

울고 싶을 땐 사하라로 떠나라 유영만·유지성/할리스퀘어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와 대한민국 제1호 오지 레이서 유지성 작가. 같은 제목의 책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우연히 만난 이 두 남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말하는 혹독한 땅 '사하라'로 떠났다.

모든 것이 말라버린 땅, 생명이 존재할 수조차 없을 것 같은 사하라사막에서 오로지 자신의 두 다리로만 달려야 하는 사하라 레이스. 이 지옥의 레이스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절실한 이유를 가슴에 품고 지옥의 레이스에 몸과 마음을 내던진다. 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그들은 왜 사하라로 갔을까. 불혹을 넘긴 두 남자가 6박7일 동안 10㎏이 넘는 배낭을 메고 250㎞를 달리며 얻은 건 무엇일까.

책은 이 두 사람이 사하라를 달리면서 스스로의 인생에 던진 질문과 대답, 반성과 깨달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들이 극한의 체험 속에서 발견한 보석 같은 인생의 지혜는 그 어떤 책이나 영화에서도 본 적 없는 아주 신선한 '날것' 그대로다.

저자들은 "나이가 많든 적든 살면서 직위·하력·종신 성별·계급을 모두 떼고, 가식이나 겉치레 없이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사하라"라고 말한다. 또 그곳에서 좀 더 깊숙한 곳에 있는 내면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확신한다.

"세상을 다르게 보고 싶으면 다르게 체험하라", "모래에 발이 빠지면 힘을 빼고 부드럽게 밀고 나가라. 인생에서도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다. 힘을 빼고 부드럽게 상황을 타개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등 두 사람이 전하는 인생의 조언은 생생하다.

직접 사막에 가볼 수 없어도 그들의 레이스를 따라가다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좌절이 아무리 괴로운 것이라 해도 사막의 모래알만큼이나 작고 사소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박지원기자 sw@metroseoul.co.kr

책속 한컷 와인병 따는 신사와 숙녀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는 오크겠다. 두 팔을 벌리고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있는 얼굴 덕에 보는 사람의 입가에 마냥 미소가 번진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장난감이 아니라 세계적인 디자이너 알렉산드로 멘디니가 만든 '와인 오프너'라는 사실이다. 와인병 위에 얹어서 머리를 돌리면 팔이 올라가고, 그 팔을 두 손으로 다정하게 잡고 아래로 내리면 와인병의 코르크 마개가 경쾌한 소리를 내며 뽑힌다. 알렉산드로 멘디니는 디자인이 기능적 효용을 제공해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알렉산드로 멘디니'(최경원/미니멈) 중-

/박지원기자

中 공분하고 日 고개 숙일 역사소설

황태자비 납치사건 김진명/새움

소설가 김진명이 2001년 출간한 '황태자비 납치사건'을 개작해 11일 인터넷 연재를 시작했다.

소설의 바탕이 된 명성황후 살해사건의 부도함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독도 문제에서 일본 편을 드는 것은 제국주의적 침략을 옹호하는 반역사적 반인륜적 행위라는 걸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게 작가의 개작 의도다.

연재분은 인터파크 도서 홈페이지의 북DB 코너에 월~금요일 업데이트된다. 현재 개작은 끝난 상태로 중국에서의 동시 출간을 위해 국내 연재와 번역이 병행되고 있으며, 중국 독자들이 과거사 문제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중일전쟁 중 일어난 난징대학살 사건이 소설에 들어갔다.

연재가 끝나는 내년 초쯤 중국에서는 '황태자비 납치사건'이라는 원제 그대로, 한국에서는 '신(新)황태자비 납치사건'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작가는 연재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독자들과 교감하고 다음으로 전 세계의 독자들에게, 마지막으로는 기필코 일본 국민들에게 이 책을 읽히고야 말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박지원기자

metro entertainment

로코퀸 김선아(38)는 "머리카락을 잘랐더니 후련하다"는 말로 첫 스릴러 도전작 '더 파이브'의 개봉(14일)을 앞둔 심정을 표현했다. 어둠 속에서 거칠게 사는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일부러 태워서 상하게 한 머리카락을 이제야 다듬었단다. 그러나 촬영 중 다친 팔 부상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 그는 "이 정도로 고생할 줄은 몰랐다. 그렇지만 올랐으니 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혹독한 스릴러 신고식을 치른 소감을 밝혔다.

"휠체어 액션… 하루도 성할 날 없었죠"

'더 파이브'로 첫 스릴러 도전 김선아

◆고생한만큼 만족도 커

동명의 웹툰이 원작인 이번 영화에서 여자들의 뼈로 아름다운 인형을 만드는 연쇄살인범 재욱(온주완)에게 딸과 남편을 잃고 자신의 장기를 담보로 조력자 다섯 명을 모아 복수에 나서는 은아 역을 열연했다.

특히 가족이 살해당할 당시 부상을 입어 걷지 못하게 됐으면서도 복수를 펼치는 은아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김선아는 휠체어를 탄 채 넘어지고 구르는 결코 쉬지 않은 액션을 소화했다. 화면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손도 밀의 흉까지 표현해 손톱 성할 날도 없었다.

"찍을 때는 상당히 힘들었지만 생각해보면 '몸짱' 'S 다이어리' '황산벌' 등 쉽게 찍은 영화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황산벌' 때는 폭탄 파편에 살이 뜯기기도 했죠. 다행히 이번엔 고생이 큰 만큼 만족도가 커요. 촬영이 끝난 후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죠. 어렇게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내면연기도 쉬지 않아

그러나 차마 입에조차 올릴 수 없는 은아의 처절한 감정들을 내면에서 혼자 감당해야 했던 것만큼은 결코 쉬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심장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가족이 당하는 장면을 떠올릴 때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미칠 것만 같아서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영화를 엄마가 보시면 더 가슴이 아프실 거예요. 엄마는 제가 말기 암 환자로 나왔던 드라마 '여인의 향기'를 보실 때도 초상난 것처럼 우셨죠. 배우가 아닌 자식으로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아직 미혼인 그는 은아의 심정을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딸 역으로 나온 아역배우와 친해지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예쁜 드자를 하며 여식한 사이를 좁혀갔고, 지드래곤을 좋아한다고 해서 YG엔터테인먼트의 스태프를 수소문해 사인 CD를 받아주기도 했다.

> "연쇄살인범에 가족 잃고 복수에 나서는 여인 열연 내! 심장이 두개 였으면… 연기인생 2막 같은 느낌"

◆흥행 욕심은 버린지 오래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시티홀' '여인의 향기' 등 로맨틱코미디물을 연이어 성공 시키며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지만 영화에서는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다.

"물론 흥행이 잘됐으면 좋겠지만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린 지는 오래됐어요. 흥행과 상관없이 자금이 연기 인생 2막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번에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죠. 그리고 전에 했던 영화들이 없었다면 이 작품을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차근차근 쌓아온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겠죠."

어떤 캐릭터를 만나느냐보다는 누구와 함께하느냐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나는 어차피 어린처럼 사람들의 수많은 인생을 살아보는 배우다. 지금도 사람들과 만나며 배우는 과정이고, 앞으로도 그러고 싶다"며 소박한 바람을 털어놓았다.

/유순환기자 ssh1927@metroseoul.co.kr
사진/이완기기자 촬영협조/더 디자인/박은지

star bag

日 드라마서 로맨스 연기

빅뱅 승리가 일본 드라마에 출연해 로맨스 연기를 펼친다.

승리는 다음달 4일부터 종합 엔터테인먼트 앱 UULA를 통해 독점 공개되는 일본 드라마 '유비코이 그대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첫사랑을 찾아 일본에 오는 한국인 유학생 한순호 역을 맡았다. 이 드라마는 마음을 잘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젊은이들이 문자로 서투르게 사랑을 발전시켜가는 모습을 그렸다.

'우리가 사랑할…' 감독 변신

배우 엄태웅이 다음달 방영될 JTBC 미니시리즈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에 출연한다.

엄태웅은 남자 주인공인 오경수 역할을 연기한다. 오경수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영화감독으로 칸 영화제에서 수상하는 등 큰 성공을 거뒀지만 전 아내로부터 버림받은 상처를 안고 사는 인물이다.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을 연출한 김윤철 PD가 연출을 맡았다.

中 원로배우 증강과 호흡

배우 박해진이 글로벌 인맥을 자랑했다.

박해진은 내년 중국 CCTV에서 방영 예정인 드라마 '방관'에서 중화권 유명 원로배우 증강과 연기 호흡을 맞췄다. 증강은 '영웅본색' 시리즈와 '천녀유혼', '종횡사해', '예스마담' 등 인기 누아르 영화에 출연하며 국내에도 잘 알려진 중국 국민 배우다. 박해진은 같은 소속사 배우 박정아와의 의리로 특별 출연했다.

'빛나는 로맨스' 캐스팅

배우 유민규가 MBC 새 일일연속극 '빛나는 로맨스'에 캐스팅 됐다.

'빛나는 로맨스'는 가슴으로 낳은 비혈연가족의 이야기로, 위장 이혼으로 어처구니없게 이혼을 당한 오빛나(이진)와 그 가족들이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꿈과 사랑을 이루는 인생 역전 로맨스 드라마다. 유민규는 하준(박윤재)의 남동생 기준 역을 맡았다. '오로라 공주' 후속으로 다음달 첫 방송된다.

도박 후폭풍… 방송가 '개편 도미노'

앤디·양세형도 검찰 조사… 10개 프로 이상 새판 전망

방송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연예인들이 불법도박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로 소환되면서 방송가가 쑥대밭이 됐다.

이수근과 탁재훈이 검찰에 소환된 데 이어 방송인 붐, 개그맨 양세형, 가수 토니안과 앤디까지 줄줄이 조사를 받으면서 이들이 출연 중인 여러 프로그램이 대체 인력 찾기와 결방 등으로 비상이 걸렸다. 이들 외에도 다수 연예인이 추가로 수사 선상에 올라 방송가에서 받는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앞서 김용만과 신정환이 도박 혐의로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검찰 조사를 받은 연예인들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10개 이상이 돼 파장은 더욱 크다. 방송가에는 '봄·가을 개편이 아닌 도박 개편'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다.

이수근은 이미 혐의를 인정하고 KBS2 '우리동네 예체능', '해피선데이-1박2일', tvN '섹션왕자 게임 마이턴' 등에서 자진 하차했다. 이에 따라 각 프로그램은 이수근의 분량을 통편집했고, '마이턴'은 편성이 어려워 11일 결방 사태를 맞았다.

붐 역시 "물의를 빚어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자숙하겠다"고 11일 오후 공식 입장을 밝혀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 라디오 '붐의 영스트리트', KBS2 '총리와 드림팀 2'와 이번주부터 출연 예정이던 SBS E! '마셰왕 코리아'가 당장 자질을 빚게 됐다.

양세형도 출연 중이던 SBS '웃찾사'와 MBC에브리원 '무작정 패밀리 3'에서 하차했다고 12일 밝혔다. '무작정…'은 이날 긴급 결방됐다.

나머지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탁재훈은 다음달부터 출연할 예정이던 엠넷 '비틀즈코드 3'의 출연이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토니안의 QTV '20세기 미소년', 앤디의 JTBC '신화방송-신화가 찾은 작은 신화'도 출연 여부를 가늠하긴 힘들다.

앞서 이들은 일명 '맞대기 도박'으로 불리는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거액의 판돈을 걸고 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수근·양세형·앤디.

김수현 수지와 백허그… 삼촌팬 질투나겠네 김수현(오른쪽)이 수지(왼쪽)의 백허그로 삼촌 팬들의 질투와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다. 한 아웃도어 브랜드 전속모델인 이들은 프랑스 샤모니의 설원을 배경으로 '로맨틱한 겨울 글램핑을 떠난다'는 콘셉트로 커플 화보를 촬영했다. 사랑스러운 두 사람의 모습이 마치 한 편의 로맨틱한 영화처럼 연출됐다고 업체 측은 전했다.

▶ 로맨틱까지만 허락할게요. 에로틱은 안 돼요. /유순호기자

'수수한 커플룩' 이효리·이상순 신혼여행 귀국

가수 이효리·이상순 부부가 두 달간의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9월 15일 독일로 출국해 유럽 일대에서 배낭여행을 즐기던 이들은 11일 오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발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청바지에 점퍼, 백팩 차림의 수수한 커플룩으로 관심을 모았다.

에일리 누드사진 불법 유포자 진실공방

전 남친 아닌 제3자?

에일리(사진)의 누드 사진 유출 경로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에일리가 영어권 한류 매체인 올케이팝에 근무하는 전 남자친구에게 유출의 혐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올케이팝 측은 12일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이를 반박했다.

올케이팝에 따르면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6월 28일 에일리의 누드 사진을 3500달러(약 375만원)에 팔겠다며 접촉해왔고, 올케이팝은 에일리의 소속사인 YMC에 누군가 누드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알렸다.

올케이팝은 "(사진 제공자가) 불법 행동을 하면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정보를 YMC에 제공하려 했지만 YMC는 이를 거절했다"며 "우리는 해당 사진이 인터넷에 게재되지 않으면 기사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했다. 인터넷에 노출될 경우 직업상 기사를 써야만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에일리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 "그는 에일리의 누드 기사와 무관하다. 지금까지 제보받은 e메일을 모두 소장하고 있다. YMC가 소송을 벌인다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앞서 YMC는 에일리가 미국 거주 당시 속옷 광고 모델 제의에 사기를 당해 누드 사진을 촬영하게 됐고, 경찰 수사와 관련한 상의를 하던 중 전 남자친구에게 사진을 보냈다가 온라인에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일리는 6일 일본에서 데뷔 싱글 '어는'을 발표하고 프로모션을 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는 현지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할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못말리는 '응사' 신드롬 '고아라 화장품'도 인기

최근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4'의 방송에서 성나정(고아라 분)이 화장품을 사용하며 자신의 피부에 감탄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 방송이 나간 후 관련 제품의 매출이 급증하는 등 고아라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라리코스는 지난 9월 방송된 8회에서 고아라가 세안 후 사용한 '마린 트리플 트리트먼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으며 주말 백화점 판매가 전주 대비 20% 정도 늘었다고 밝혔다.

라리코스 마케팅 박경민 팀장은 "해금 제품은 고아라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메이크업 없이 맑은 피부톤을 유지하는 극중 캐릭터와 잘 맞아떨어져 드라마에 협찬하게 됐다"고 전했다. /장병철기자

'온수매트 스팀팩토리' 출시 15%할인 무선주전자 증정

한경희생활과학은 온수매트 스팀팩토리'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판촉행사를 편다.

다음달 2일까지 공식 쇼핑몰에서 스팀팩토리를 15% 할인하고 구매 고객에게 전판형 유리 무선주전자를 준다. 정가로 사는 고객에게는 한경희 스팀청소기나 광파오븐을 준다. 스팀팩토리는 소형 전기보일러로 데운 물을 전용 호수로 순환하는 방식이다.

제이에스티나의 '루미너스' 빛나는 크리스마스 에디션

제이에스티나가 2013년 크리스마스에디션으로 루미너스 라인'을 선보인다.

밤하늘의 별빛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대표 제품인 루미너스 스텔라는 블랙과 블루 화이트 스톤으로 신비한 느낌을 강조했다. 크리스마스 화보에서 다코타 패닝과 엘르 패닝이 착용하고 있는 아이템이며 목걸이는 29만원, 귀걸이는 15만원이다. 문의 080)998-0077

후드 재킷+트레이닝 팬츠 케이스위스 남녀공용 출시

화승의 스포츠 브랜드 케이스위스가 남녀 공용으로 입을 수 있는 후드 집업 재킷과 트레이닝 팬츠로 구성된 '클래식 오리지널 트레이닝복'을 선보였다.

부드럽고 신축성이 강한 저지 원단을 사용했으며, 기본 디자인으로 상품에 따라 믹스매치가 가능하다. 재킷 가격은 7만9000~11만8000원, 팬츠는 5만9000~7만8000원이다. 문의 www.k-swiss.co.kr /서지은기자

휘닉스파크 '스키시즌 스타트'

다음달말까지 시즌권 판매 이전시즌 구입고객들 할인 리프트+장비렌털 55% 저렴

보광 휘닉스파크가 지난 11일 국내 최초로 2013~14년 스키 시즌을 오픈했다.

휘닉스파크는 개장 당일 펭귄슬로프에 67대의 제설기를 가동했으며 올해 제설용 워터펌프를 추가 도입하는 등 제설시설을 강화해 고객들이 최상의 설질에서 라이딩할 수 있도록 슬로프 정비 등에 만전의 준비를 갖췄다. 특히 개장 당일인 11일 월요일엔 모든 고객들에게 리프트 무료 이용의 혜택이 주어졌으며 스키장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운영된다.

◆올겨울 오직 휘닉스파크에서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10개 종목을 개최하는 휘닉스파크는 우선 대구, 부산, 대전 등 지방 11개 도시 무료 셔틀버스 노선을 가동했으며 서울, 경기·인천지역에 셔틀버스를 추가 도입했다.

또 보드 마니아들을 위해 익스트림 브랜드 버튼의 최신 렌털 보드장비를 확대·도입했으며 SK텔레콤과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 T월드(Tworld) 다이렉트 숍에서 번호 이동이나 기기 변경을 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2013~2014년 스키시즌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워터파크 50% 할인, 부대시설 10% 할인 등의 혜택 역시 빠뜨릴 수 없다.

◆시즌권 9종…할인 혜택도 다양

휘닉스파크 시즌권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휘닉스파크 홈페이지(www.pp.co.kr)와 인터넷 쇼핑몰 11번가에서 판매된다.

판매될 시즌권은 ▲MAD(Mania Annual Discount) for 휘팍패스 ▲휘팍마니아 ▲싱글 ▲휘팍 꿈나무 ▲커플 ▲대관리권 등 총 9종이다.

싱글 권은 47만원, 커플권은 84만원에 판매되며 2007년 이후 휘닉스파크 시즌권을 한 번 이상 구입한 고객이 구입할 수 있는 휘팍마니아권은 43만원이다. 특히 지난 시즌권을 구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MAD for 휘팍패스는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2018년까지 매년 1만원씩 최대 5만원을 할인해주는 상품으로 가격은 42만원이다.

이와 함께 휘닉스파크는 리프트권과 장비렌털권을 묶은 오바일 세트권을 선보인다. 최대 55% 할인된 가격에 스키리프트와 장비 렌탈을 이용할 수 있는데 온라인 구매 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모바일 바코드를 스키장 매표소에 제시하기만 하면 된다. /황재용기자

이 다운재킷 광고의 온도는 36.5℃

아웃도어업계 올겨울 CF 따뜻함 그 이상 전달하는 감성적 스토리-영상 화제

아웃도어 브랜드 광고가 달라지고 있다. 많은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겨울 시즌을 맞아 선보이는 새로운 광고들 속에서 신선한 시도를 하고 있는 광고가 눈에 띈다.

기존의 아웃도어 광고와는 달리 보는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오프로드는 광고 또한 차별화된다. 오프로드는 겨울 시즌 TV 광고를 통해 보온성이 뛰어난 제엘자켓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광고 속에서 제엘 자켓의 따뜻함을 느끼는 건 사람이 아닌 아기 북극곰이다. 오프로드의 겨울편 TV 광고는 김남길이 추위에 떠는 아기 북극곰에게 오프로드의 제엘자켓을 덮어주는 장면을 통해 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 제엘자켓의 기능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연출로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이다.

그런가 하면 흑백 영상과 내레이션만으로 보는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광고도 있다.

최근 코오롱스포츠가 선보이고 있는 광고는 오델 장동건과 탕웨이의 모습과 내레이션만으로 영상이 구성돼 주목을 받고 있다. 오델과 제품만을 보여주는 흑백 영상과 오델의 차분한 목소리를 활용한 감성적인 내레이션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했다.

감성을 자극하는 광고 카피도 눈에 띈다. 현빈이 등장하는 K2의 광고는 설원과 현빈의 모습을 함께 비추며 '지금이 아니면 결코 만날 수 없는 순간이 있다' '인생은 한번뿐이니까'라는 카피가 등장한다. K2는 2013년 '인생은 한번뿐이니까'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는 이의 열정과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 광고를 선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프로드의 브랜드 관계자는 "최근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광고는 단순히 기능만을 강조하거나 오델에만 의존하는 단순한 구조에서 탈피해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오프로드의 겨울 광고 역시 따뜻한 스토리 안에 제품의 특성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데 중점을 두고 제작됐다"고 밝혔다.

/장민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인공관절 내비게이션'으로 무릎 팔팔

퇴행성관절염 말기 연골 제거후 뼈 각도·두께 등 오차없는 신개념 수술 · 색전증 등 합병증도 적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사는 이모(69)씨는 좌측 무릎이 바깥쪽으로 틀어져 있는 상태여서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통증으로 인해 밤에 잠도 못 이루는 상황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리의 변형과 통증이 심해져 그녀는 결국 병원을 찾았고 퇴행성관절염 말기 진단을 받았다.

◆연골 손상으로 생기는 퇴행성관절염

퇴행성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점진적인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에 손상이 일어나면서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관절질환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

퇴행성관절염의 초기 증상으로는 관절 부위를 움직일 때 나타나는 국소적인 통증이 대부분이며 증상이 심해지면 움직임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 관절 운동 범위의 감소와 부종, 관절 주위의 압통과 연골 소실, 변성으로 다리의 모양이 O자로 변형되거나 마찰음이 잦아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증상들은 서서히 진행되며 간혹 증상이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간헐적인 경과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말기에 접어들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통증은 물론 심각한 다리 변형으로 보행 장애를 겪으며 신체 균형까지 잃을 수 있다.

김상훈 수원 튼튼병원 의무병원장은 "다리가 갑자기 'O자'로 변형되거나 관절 운동 시 통증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것은 퇴행성관절염의 시작 또는 이미 진행된 상황을 알리는 신호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상훈(오른쪽) 수원 튼튼병원 의무병원장이 환자에게 인공관절 내비게이션 수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퇴행성관절염 말기 치료에는 인공관절 수술이 대표적

퇴행성관절염의 초·중기 치료법은 ▲긴장 및 찜질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 요법 ▲적절한 휴식과 운동을 균형 있게 시행하는 국소 치료 ▲부목이나 보조기 착용 ▲관절 내 유리체 제거 ▲활막 절제술 ▲골극 제거술 ▲절골술 등이 있다.

그러나 심각한 상태인 말기의 경우는 인공관절 수술이 최선이다.

인공관절 수술은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손상된 연골을 제거한 후 맞춤형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연골 전체를 교체하기도 하고 일부만 교체하기도 한다. 인공관절 수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손상된 관절을 잘라낼 때 관절의 균형을 맞추고 정확한 위치에 관절을 삽입하는 것이다. 다행이 최근에는 내비게이션 원리를 이용해 뼈의 각도와 두께, 간격 등의 정확한 값을 안내하는 '인공관절 내비게이션 수술'이 등장했다.

인공관절 내비게이션 수술이란 컴퓨터에 환자의 관절 정보를 입력하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제거할 뼈의 각도와 두께, 간격 등을 정확하게 측정한 후 오차 없이 인공관절을 삽입해 인공관절 수술의 성공률을 대폭 상승시키는 수술이다. 기존의 인공관절 수술에 비해 수술 후 통증 및 출혈이 적고 재활 기간이 짧아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며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색전증 등 합병증 발생 확률도 낮다.

김 의무병원장은 "기존의 인공관절 수술과는 달리 내비게이션 수술은 GPS의 원리로 환자의 관절과 최대한 똑같은 인공관절을 만들고 정확한 위치에 삽입해 부작용이 적은 맞춤식 수술"이라며 "하지만 인공관절의 최대 수명이 15~20년인 것을 고려하고 본인에게 적절한 수술인지는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 등을 토대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당뇨병 극복 소망 담은 '푸른 종이 비행기' 오는 14일 2013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한국제약기업협의회과 한국릴리 임직원들이 서울 남대문로 한국릴리 본사에서 당뇨병 극복 의지를 전하는 '푸른 소망 비행기 날리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임직원들은 파란색 종이비행기에 당뇨병 극복에 대한 열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적어 세계 당뇨병의 날을 상징하는 푸른 원 안으로 비행기를 날리며 당뇨병 환자에게 희망을 전했다. /연합뉴스

경동 약령시에 '개방 실험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경동 약령시에서 '개방형 시험실 개소식' 및 식약처-한약재 제조업체 간 간담회 등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방형 시험실은 규모가 작은 한약재 제조업체가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시험장비를 무료로 사용토록 해 제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한약재 품질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황재용기자 hsju@

티 나고 불편하던 치아교정 '달라졌네'

브레킷 없는 투명 '인비절라인' 허걸림 줄인 설측 '인코그니토'

일반적인 치아 교정은 작고 네모진 브래킷에 철사로 연결된 장치를 치아 겉면에 붙여 치열을 가지런하게 만든다. 이에 눈에 잘 띄는 것은 물론 음식물이 잘 껴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했다.

◆디지털 치아교정 '에스플란트 치과병원'

하지만 최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교정장치들이 등장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우선 투명 교정장치는 브라켓이 없는 투명한 강화 플라스틱 치아 틀로 심미적이며 환자 스스로 뺐다 끼웠다 할 수 있어 편리하고 관리가 용이하다. 특히 얼라인테크놀로지가 개발한 '인비절라인'의 경우는 3차원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장치를 제작한다.

에스플란트 치과병원 허재식 원장이 인코그니토에 대해 환자와 상담하고 있다

또 브래킷을 치아 안쪽 면에 붙이는 설측 교정장치도 있다. 지로 속도나 효과면에서 뛰어난 설측 교정장치는 혀에 교정장치가 걸리고 발음이 부정확해지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3M이 개발한 설측 교정장치 '인코그니토'는 3차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런 단점을 극복했다. 치아 모양대로 브래킷을 디자인하며 브래킷 높이를 낮추고 두께나 간격도 최대한 줄였다. 또 생체 친화도와 치아 적합도가 높은 금으로 제작해 혀 걸림이나 발음 장애 현상이 훨씬 줄어든다.

인비절라인과 인코그니토 임상 자문의인 허재식 에스플란트 치과병원 원장은 "치아 교정은 치과 및 교정 의사 선택이 중요하다"며 "교정 의사의 노하우와 기술에 따라 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교정 의사를 찾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박찬호 '일구대상' 영예 류현진 특별공로상 받아

코리안 특급 박찬호가 2013 일구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 프로야구 OB 모임인 일구회는 12일 2013 일구상 수상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10개 부문 영예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대상 수상의 영광은 박찬호에게로 돌아갔다.

올해 타격 4관왕을 차지하며 2년 연속 프로야구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된 박병호(넥센 히어로즈)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최고 타자상을 받는다.

올 시즌 46세이브를 기록한 손승락(넥센)이 최고 투수상을 손에 쥐었다. 유희관(두산 베어스)은 4년간 무명의 설움을 딛고 한국시리즈에서 보여준 승부사 기질을 인정받아 일구회가 주는 신인상을 받는다.

류현진(LA 다저스)은 한국 야구의 위상을 드높인 이유로 특별공로상을 받는다. 일구상 시상식은 다음달 9일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열린다. /장성훈기자

FC서울 ACL 페어플레이상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FC 서울이 2013년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페어플레이상을 수상했다.

서울은 12일 "9일 광저우 헝다와의 ACL 결승이 끝난 직후 2013년 아시아축구연맹으로부터 페어플레이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페어플레이상은 그룹 리그에서 각 팀이 받은 벌점의 합산(벌점 경고 1점, 경고 누적 퇴장 3점, 직접 퇴장 3점, 경고 후 직접 퇴장 4점)과 팬들의 관전 매너, 신사적 경기 운영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선정된다. /장성훈기자

'차재영 16점' 삼성 3연승

서울 삼성이 3연승의 상승세를 탔다.

삼성은 12일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2013-2014 정규시즌 원정경기에서 인천 전자랜드를 69-58로 꺾었다.

포워드 차재영은 가로채기를 3개나 성공하는 수비뿐 아니라 16점을 쏟아붓는 공격력까지 뽐내며 승리를 견인했다. 부상을 털고 복귀해 삼성의 회복세를 이끄는 외국인 센터 마이클 더니건은 7득점 9리바운드를 기록했다.

전자랜드는 6승7패로 6위에 그대로 머물렀다.

프로농구 전적 12일

팀	1Q	2Q	3Q	4Q	합계
삼성	24	14	22	9	69
전자랜드	16	17	11	14	58

프로배구 전적 12일

팀			팀
우리카드	3	0	러시앤캐시

특명! 유럽팀 승리해법 찾아라

홍명보호 15일 스위스전 "7년 전 패배 꼭 갚겠다"

스위스와의 평가전을 앞둔 축구 국가대표팀이 선배들이 당한 7년 전 패배를 되갚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2일 경기도 파주 NFC(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 모여 소집 훈련을 시작했다. 대표팀은 1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스위스전과 19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러시아전을 치르며 유럽 강호들에 대한 대응법을 찾는다.

스위스는 2006 독일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에서 한국과 같은 조에 속해 1승1무로 16강 진출을 기대하던 한국에 0-2 패배를 안긴 바 있다. 23명의 대표 선수 중 당시에 출전한 선수는 없지만 대표팀은 선배들이 당한 패배를 한국 축구 팬들 앞에서 당당히 갚아 보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근호(상주 상무)는 "그냥 이겨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 본선에서 좋은 결과를 내려면 유럽팀을 상대로 승리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기성용(선덜랜드)은 "객관적으로 체력적·기술적인 면에서 우리보다 나은 팀이다. 최대한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다함께 점핑~ 12일 경기도 파주 NFC(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 모여 소집 훈련을 시작한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점프를 하며 몸을 풀고 있다. /뉴시스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유럽 정규리그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물오른 골 감각을 보이고 있는 손흥민(바이엘 레버쿠젠)은 "분데스리가에 좋은 스위스 선수들이 많다. 하지만 이번에 홈에서 경기하는 만큼 이길 거라고 본다"고 승리를 다짐했다.

3개월여 만에 대표팀에 복귀한 김신욱(울산 현대)은 "독일 월드컵 스위스전을 잘 기억하고 있다. 선수들이 하나가 돼 본선을 앞두고 스위스를 꺾는 좋은 경험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표팀의 맏형 곽태휘(알 샤밥)는 "올해 마지막 평가전인 데다 강팀과 치른다는 큰 의미가 있는 평가전이다. 조직력에서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올림픽 대표팀을 이끌고 2012년 런던 올림픽 조별리그 2차전에서 스위스를 2-1로 눌렀던 홍 감독은 "나는 올림픽 대표팀 감독으로 스위스를 한 번 이겨봐서 괜찮은데"라는 농담을 던지면서도 "팬들을 위해 이번에 이길 수 있다면 좋겠다"고 결의를 보였다. /유순호기자

'테니스왕중왕' 조코비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가 1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 월드투어 파이널스 단식 결승에서 세계 랭킹 1위 라파엘 나달을 꺾고 포효하고 있다. 조코비치는 대회 2연패와 함께 22연승 행진도 이어갔다. /로이터 연합뉴스

페르난데스·마이어스 MLB 신인상

미국프로야구 마이애미 말린스의 투수 호세 페르난데스와 탬파베이 레이스의 외야수 윌 마이어스가 내셔널리그(NL)와 아메리칸리그(AL)의 신인상을 각각 차지했다.

페르난데스는 12일(한국시간)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가 선정하는 올해의 신인 부문에서 30장의 1위 표 중 26장을 받아 신인상의 영광을 누렸다. 류현진(LA 다저스)은 3위 표 10장을 받아 10점을 기록해 4위에 올랐다.

호세 페르난데스 / 윌 마이어스

AL 신인상을 받은 마이어스는 30장의 1위 표 중 23장을 획득해 함께 후보에 오른 호세 이글레시아스(디트로이트)와 크리스 아처(탬파베이)를 따돌렸다. 마이어스는 탬파베이가 배출한 세 번째 신인왕이다. /장성훈기자

추, 1억달러 사나이 되나

구단 퀄리파잉오퍼 거부

메이저리그 자유계약선수(FA) '대어'로 부상한 추신수(31·사진)가 예상대로 원소속구단인 신시내티의 퀄리파잉 오퍼를 거부했다.

신시내티는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추신수가 이달 5일 구단으로부터 제시받은 1년간 1410만 달러(약 149억8530만원)의 퀄리파잉 오퍼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신수는 1억 달러 사나이를 향해 본격적으로 FA 시장에 뛰어들었다.

퀄리파잉 오퍼는 구단이 FA 선수를 잡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뒤 선수를 놓쳤을 때 보상받을 길을 열어둔 것이다. 1년 계약으로 계약 금액도 메이저리그 연봉 상위 125명 선수의 평균값으로 동일하다. 추신수가 퀄리파잉 오퍼를 거부하면서 신시내티는 내년 신인드래프트에서 유망주 한 명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추신수의 거부는 예견된 결과다. 리그 전체에서 손꼽히는 톱 타자로 자리매김한 만큼 추신수에게 눈독을 들이는 구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몸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추신수와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는 대략 9000만~1억2600만 달러(약 964억~1350억원) 정도의 계약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 컵스·화이트삭스, 뉴욕 양키스·메츠, 애리조나, 휴스턴, 시애틀 등이 추신수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장성훈기자

캣우먼

임경선 칼럼니스트

나이에 맞는 옷차림의 기준 대체 뭐죠 주위의 시선 의식하다간 입을 옷 없어

Q Hey 캣우먼! 삼십대 후반인 여자입니다. 저는 사실 서른 살 무렵부터 일관되게 좋아하는 옷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이제 넌 그 브랜드의 옷 입으면 안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제 나이에 걸맞다고 알려진 브랜드의 옷들을 백화점에서 입어보았는데 오히려 실제 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나한테 어울리는 혹은 내 나이에 어울리는 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너무 어리지도, 너무 나이 들어 보이지도 않게 옷을 입는다는 것 너무 어렵네요. 어떤 기준으로 옷을 입어야 할지요. /낙엽이 떨어지면

A Hey 낙엽이 떨어지면!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것들의 기준이 나이 인 것 같아요. 상대에 대한 예우도, 순서도, 무엇이 이르고 늦은지에 대한 판단도, 하물며 옷 취향도. 싫은 지도 떠든 즈음 님과 같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고 싶은 옷이 점점 없어지는 슬픈 현상. 사실 우리 문제라기보다 한국의 여성 의류 스타일이 너무 유행에 민감하거나 너무 점잖거나, 양극단이라는 게 문제죠. 그래도 다 무시하시고 개인 취향으로 가시죠. 우선 나한테 어울리는 색과 천 소재를 고를 것. 얼굴마다 어울리는 색은 다 다르고 피부에 와 닿는 편한 옷감은 다 다릅니다. 그 다음 내 몸선에 어울리는 스타일의 옷 종류. 즉 단점을 가리기보다 장점을 살리는 옷을 고를 것.

나이 들어 옷 입는 게 달라진다면 그것은 나의 몸을 알고 나한테 어울리는 것을 알고 나한테 편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지, 남들에게 어떻게 하면 무난하게 보이느냐가 아니죠.

옷에 대해 잔소리하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이 특정 스타일의 옷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강요하는 것일뿐입니다. 그럴 땐 "너나 입어. 그런 거"라고 대꾸하시길. /캣우먼

날씨

11/13 水 해뜨는 시각 07 09 해지는 시각 17 2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131.co.kr

지역	기온
서울	3/11
청주	-1/12
대전	3/12
전주	1/13
광주	4/13
제주	10/14
강릉	5/13
울릉도	6/8
대구	1/14
포항	3/16
울산	2/16
부산	4/14

날씨가 쌀쌀할 때는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외출을 삼가야 하며 실내에서도 속옷을 착용하고 과도한 난방을 줄이는 것이 뇌졸중 예방에 좋습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1			
			7			5		
			8	9		1	3	
			4					1
	6	3				7		
1					9	6	2	
	7			2				
5		9		4				
4	2		9					8

					1		8	
					2	4		7
5	9			7			6	
	6						7	3
						5		
3		4						
6	4	9	5					
		3			8	9		
		2	7			1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 보누스

슈퍼스도쿠 맥스터 (퍼즐러 미디어 리미티드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saz426.com

큰아들과 사사건건 금전 충돌 노력해도 재산 지키기 어려워

당뇨사업 여자 64년 10월 14일 9백

Q 40대 초반에 당뇨병에 걸린 뒤 나름대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재산을 좀 모아놨는데 큰아들과 계속해서 부딪치고 충돌합니다. 재산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당뇨병(糖尿病)은 혈액 속에 당(포도당)이 많아져서 오줌에 당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토(辰土) 속에 계수(癸水)는 수(水)의 고장(庫藏)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음력 9월의 백호(白虎)에 부딪혀 형살(刑殺)을 맞고 있기에 늘 위험을 안고 있는 격입니다. 이는 뼈의 근원인 저장고가 진토로서 토(土) 오행이 충돌되는 것으로 2015년 특히 2016년에는 건강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관인 아들을 극하게 되어 사이가 나빠지게 되는데 진정한 어머 사랑으로 불순함을 녹여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노력하더라도 재산 지키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보태드릴 말이 많으니 다시 상담 신청하세요.

명절때만 되면 결혼 스트레스 사람 만나도 이별수 주의해야

범사계 남자 81년 8월 27일 9백

Q 아직까지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사주에 여자가 없는 건지요. 명절에 집에 내려갈 때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야근이 잦아서 위장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현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나요?

A 정신적으로는 정확하고 건전합니다. 하지만 위장 건강이나 골격이 평균보다 다소 떨어집니다. 업무가 많아 업무 스트레스로 위장병이 올 수 있으니 사주적인 요인이 크니 이직으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평소 운동과 절식의 식습관으로 건강을 지켜보십시오. 예술적 기능이 뛰어나고 등잔불처럼 빛을 발해 여러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세월이 갈수록 사랑받고 존경받는 길명입니다. 조상 자리에 천을귀인(하늘의 귀인)이 도움을 주는 길한 이 있어 재물에 대한 이로움도 괜찮습니다. 2015년에 사람을 만나겠으니 2016년 이별수가 있으니 궁합을 잘 보고 궁합 이전에 사주를 잘 파악해 인생 여정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1월 13일(음 10월 11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자손이 찾아와 기쁘게 한다. 60년생 불쾌한 일 있어도 내색 마라. 72년생 어렵게 추진 중인 일 큰 몫을 산다. 84년생 목표 정해졌으면 과감히 돌격하라.

소 49년생 낙상 등 안전사고 조심. 61년생 모임에 가면 알짜 정보 얻는다. 73년생 협상할 때 기싸움 일리면 끝장. 85년생 시험 보거나 추첨하면 아쉽게 탈락한다.

호랑이 50년생 혼자 술 마실 일 생긴다. 62년생 노림수가 통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음 비워라. 74년생 실속의 기회 찾아온다. 86년생 구직자는 뜻밖의 소식 기대하라.

토끼 51년생 대시 밀두고 마음 정갈히 하라. 63년생 단아한 동서 덕분에 이득 보겠다. 75년생 고민은 시간이 약임을 명심할 것. 87년생 청룡이 구름을 만난 격이다.

용 52년생 금전적 고민이 해결된다. 64년생 행복의 회의내빈을 경계할 것. 76년생 언쟁의 조짐이 될 만한 검사 생긴다. 88년생 양보할 일이 있으면 흔쾌히 하라.

뱀 53년생 잔소리가 길면 역효과. 65년생 과욕을 부린 일은 부담이 따른다. 77년생 좋은 일에 이권이 거론되어 으쓱. 89년생 친구 추천한 일은 좋은 결실 맺는다.

말 42년생 자녀의 부탁에 마음이 무겁다. 54년생 불의는 단호히 대처할 것. 66년생 자영업자는 대박 터질 거래처 생긴다. 78년생 긍정 마인드가 기적도 만드는 법.

양 43년생 현실성 없는 꿈은 접어라. 55년생 길이 막히면 대안이 필요하다. 67년생 할 일은 많은데 손도 못 대는구나. 79년생 귀찮던 일은 뜻밖의 효자가 생긴다.

원숭이 44년생 얼떨결 특우자 때문에 속이 터진다. 56년생 놀라운 변화 있으니 기대하라. 68년생 꾸자한 곳에서 이득 생긴다. 80년생 한자 꿈감한 일은 빨리 접어라.

닭 45년생 유일한 희망에 기대 걸어라. 57년생 진한말은 잘 걸고 나서라. 69년생 궂은일이라고 피하면 운세 커진다. 81년생 연인의 달콤한 목소리에 편안한 하루.

개 46년생 정성 다하면 통한다. 58년생 막강한 말일수록 거둬은 침착하게. 70년생 상식에 벗어난 행동은 화를 부른다. 82년생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돈거래 금물.

돼지 47년생 엄담어리 같은 습관은 들이세라. 59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71년생 피가 나도 무작스러운 불쾌은 피하라. 83년생 도전한 일은 좋게 결말난다.